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동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4. 4. 10 (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박문열(위원장), 김명규, 김영원, 김재열,
김정희, 박은순, 안귀숙, 이주형, 선주선,
조선미, 최성은, 최응천
(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농경문 청동기	공 개
2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3	보물 제1190호 ‘전 오자치 초상’ 지정명칭 변경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반출>	
4	국보 제96호 ‘청자 구룡형 주자’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 3점 국외반출 허가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5	국보 제193호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 현상변경 허가	공 개

【검토사항】 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	고려십육나한도	공 개
2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공 개
3	서울 보타사 마애좌상	공 개
4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공 개
5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 중형묘지	공 개

【보고사항】 1건

1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정기조사 및 다량소장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동산문화재보수정비 대상 검토	공 개
---	--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4-03-001

1. 농경문 청동기(農耕文 靑銅器)

가. 심의사항

‘농경문 청동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1.11)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3년 제6차 회의(1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2.3~3.4)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농경문 청동기(農耕文 靑銅器)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13.6cm
- 재 질 : 청동
- 조성연대 : 초기 철기시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당시 우두머리 혹은 제사장이 보유한 일종의 신기로서도 기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패형동기가 일종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단순한 악세서리로만 보기 어렵다. 앞뒤면에 시문된 문양으로 보아 일정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기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의 청동기로서 국보로 지정된 사례로서 기원전 1세기경의 대구 비산동 청동기, 기원전 2세기경의 전 논산 청동방울, 전 덕산 청동방울, 화순 대곡리 청동방울 일괄셋트가 있다. 이들 청동기의 조형성과 제작기술, 그리고 용도는 이 농경문청동기보다 늦은 기원전 2세기대를 중심연대로 한다.

기원전 3세기경의 이형 청동기로서 아산 남성리,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의 방패형동기, 검파형동기, 나팔형동기 등의 일괄셋트가 있는 바, 이들도 국가 지정 문화재의 대상이 될만하다. 그중에서 정확한 출토위치가 전하지 않는 농경문청동기는 기종과 제작기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신앙과 생업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 장식이 있는 유일한 예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래의 상당한 부분이 깨져 있지만, 동 청동기의 주요한 형태와 문양을 알아 볼 수 있는 바, 우리나라 청동기 초기철기시대의 생업과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만하다 하겠다.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당시 우두머리 혹은 제사장이 보유한 일종의 신기로서도 기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패형동기가 일종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단순한 악세서리로만 보기 어렵다. 앞뒤면에 시문된 문양으로 보아 일정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기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의 청동기로서 국보로 지정된 사례로서 기원전 1세기경의 대구 비산동 청동기, 기원전 2세기경의 전 논산 청동방울, 전 덕산 청동방울, 화순 대곡리 청동방울 일괄셋트가 있다. 이들 청동기의 조형성과 제작기술, 그리고 용도는 이 농경문청동기보다 늦은 기원전 2세기대를 중심연대로 한다.

기원전 3세기경의 이형 청동기로서 아산 남성리,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의 방패형동기, 검파형동기, 나팔형동기 등의 일괄셋트가 있는 바, 이들도 국가 지정 문화재의 대상이 될만하다. 그중에서 정확한 출토위치가 전하지 않는 농경문청동기는 기종과 제작기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신앙과 생업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 장식이 있는 유일한 예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래의 상당한 부분이 깨져 있지만, 동 청동기의 주요한 형태와 문양을 알아 볼 수 있는 바, 우리나라 청동기 초기철기시대의 생업과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만하다 하겠다.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농경문청동기는 그 어느 청동 의기 보다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진 점이 주목된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새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 새는 하늘의 신과 땅을 연결시키는 매개자로 인식되었는데, 나무에 앉은 새는 민속신앙의 솟대를 연상케 한다. 이는 새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와도 관련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벌거벗은 남성이 밭을 가는 모습은 그간 연구에 의해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행해지던 나경과 관련지어져 왔다. 2004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 중 유희춘선생인 집필한 미암선생집 3권이 입춘에 행해지던 나경에 대한 글이 그 근거가 된다.

“이 지역 사람들은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사리에 어두워 괴이함에 미혹됨이 오래되었다. 그 중 가장 말할 것도 없이 해로운 것이 신년의 나경이다. 매년 입춘 아침에 토관에 모이게 하여 관문의 길 위에서 木牛를 몰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여 심고 거두는 형태에 따라 해를 점치고, 곡식의 풍년을 기원한다. 이 때 밭을 가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옷을 벗게 하여 차가운 기운을 몸에 닿게 하니 이는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노인들이 서로 전하기를 추위에 견디는 썩썩함을 보고 歲暖의 상서로움을 이룬다고 한다.”

농경문청동기는 앞뒤면의 문양의 내용으로 보아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삼한 시대의 사회상을 미리 예고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에는 이 농경문 청동기의 용도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다.

“항상 5월에 파종을 끝마친 후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무리를 지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며 술을 마시는데, 밤낮으로 쉬지 않았다. 그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르며 땅을 밟고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손과 발이 서로 잘 어울렸는데, 그 리듬이 마치 鐸舞와 흡사함이 있었다. 10월에 농사일을 끝마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즉 이 글은 농경문청동기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난 뒤 행해진 농경 의례에 당시 사회지도자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농경문청동기를 통해 당시의 의례를 짐작할 수 있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관계전문가

○ 現狀

방패처럼 생긴 청동의기로, 아래 부분 1/3정도가 깨어져 결실되었다. 1970년 대전의 한 상인이 고철수집인에게 구입한 것이 서울의 골동상인을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었다. 출토지나 출토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괴정동 청동기 일괄품과 같이 나온 것이 흠어진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유물에 묻어 있는 철녹흔적과 일괄품에 나타난 무늬를 비교하면 같은 곳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현재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로는 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국보137호, 삼성 리움), 정문경(국보 141호, 숭실대학교 박물관),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국보143호, 국립중앙박물관), 전 논산 청동방울 일괄(국보 146호, 삼성박물관 리움), 전 덕산 청동방울 일괄(국보 255호, 삼성박물관 리움) 경주 죽동리 청동기 일괄(보물 1152호, 국립경주박물관)이 있고, 전 영암 거꾸집 일괄(국보 231호, 숭실대학교 박물관)이 청동기 주조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국립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동기 일괄유물에 대한 검토가 없어 지정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양쪽에 날카로운 뿔 모양의 돌기가 나 있고, 윗부분에는 곡선의 사다리꼴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6개의 네모난 구멍이 있다. 양쪽 구멍이 제일 많이 닳아 있어 오랫동안 사용한 듯하다. 양면에 조각이 있는데 앞면(사람이 조각된 쪽)에는 윗부분 가장자리에 거치문대(鋸齒文帶)를 돌렸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이중복조선문대(二重復條線文帶)를 돌렸는데, 바깥쪽에는 거치문대를, 안쪽에는 격자문대를 배치하였다. 중앙에는 격자문띠를 수직으로 내려뜨려 공간을 좌우로 나누어, 오른쪽에는 사람이 두손으로 농기구를 잡고 밭을 가는 장면과 팽이를 들고 땅을 파는 인물상을 상하로 배치하였다. 위쪽 인물은 머리 뒤쪽에 길게 깃털모양의 장식이 두가닥으로 휘날리고 있다. 그가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은 두가닥의 따비로 추정된다. 밭고랑은 10개의 평행선으로 표현하였다. 뒷사람의 다리 사이에 남근이 늘어져 있어, 남자로 추정되나, 아래쪽 팽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머리에 깃털이 없어 여자로 추정된다.

왼쪽 구간에는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고 그 앞에는 사격자문이 있는 아가리가 좁은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머리 위에는 가늘게 상투같은 장식이 달려 있다. 항아리는 초기철기시대에 사용되었던 흑도장경호로 추정되며 사격자문은 항아리 표면을 싸고 있던 바구니 장식을 표현한 것이다.

뒷면에는 고리가 달려 있고 주연에서 1cm쯤 안쪽에 7-8조의 세선문대를 청동기 윤곽을 따라 돌렸고, 중앙에 수직으로 격자문띠를 내려 문양구획을 양쪽으로 구분하였다. 왼쪽에는 다리모양의 꼭지에 실을 꼬아만든 낙승형(絡繩形) 고리를 달았다. 오른쪽 아랫부분은 떨어져 없어졌는데, 양쪽 모두 Y자형 나뭇가지에 반점으로 구성된 두 마리의 새가 마주 앉아 있으나, 오른쪽에는 한 마리만 남아 있다. 낙승형 고리는 양쪽에 달려 있던 듯하다.

인물표현은 선과 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표현방식은 이보다 앞선 시기의 청동의기에 나타나는 기법과 동일하다. 형태로 보아도 비슷한 것이 대전 괴정동과 아산 남성리에서 출토한 방패형 동기가 있으나 괴정동출토품에 더 가깝다. 이 유물에서 보이는 선문대 장식은 괴정동 대쪽모양 청동기에서 보이며, 점으로 표현한 새 모양은 예산 동서리의 사슴조각에서 보이는 기법과 같다. 또 낙승형 고리는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의 청동기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충청도 일대의 청동기 문화와 관계깊은 유물이다.

앞면에 새겨져 있는 밭가는 장면은 한 해가 시작되는 초봄에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 의례중 파종의례를 나타낸 것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조사된 민속자료에 함경도나 평안도에서 행해졌던 나경(裸耕), 혹은 기경속(起耕俗)에 해당한다. 아래 무늬는 상투장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성을 표현한 듯하며, 가을에 추수하는 여성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뒷면에서 보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모양 조각은 삼국지 한전, 후한서, 에 나오는 소도(蘇塗), 솟대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나라 민간신앙에 나타나는 신간(神竿)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신간숭배신앙은 우리나라와 시베리아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습속으로, 남러시아에서는 새장식 간두(竿頭)가 청동기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샤만의 신앙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다.

○ 근거 기준

문화재로 지정된 청동기들은 7건에 불과하다. 지정된 청동기들은 개인소장품이거나, 체계적인 검토를 거치지않고 지정한 유물들로, 국립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은 지정할만한 일괄품들이 많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유물은 이미 지정된 유물에 비하여 의례와 신앙을 표현한 회화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충분하므로 지정할 만하다. 다만 결손과 파손이 이루어져 있어 등급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병삼, 「선사시대 농경문청동기에 대하여」, 『고고미술』 112, 1971.

손진태, 「蘇塗考」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32.

□ 관계전문가

농경문 청동기는 같은 시기의 다른 청동기와 달리 스토리가 있는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 점에서 그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 면에 밭을 일구는 남자와 새를 잡는 여자, 다른 한 면에는 나뭇가지위에 새가 앉아 있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역사적 기록이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없는 당대의 생업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자가 기경구를 들고 밭을 가는 장면이 주목되는데, 기경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다. 대체로 발로 눌러 흙을 일구는 따비로 추정되는데, 그 끝이 양 갈래로 갈라지는 것으로 보아 양날 따비로 추정된다. 20세기 제주도 민속자료에 쇠로 만든 쌍날따비가 있지만, 농경문 청동기 당대인 기원전 3세기 전후한 시기에는 철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목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에 청동기시대 혹은 초기철기시대의 목기가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랑과 고랑이 선명하게 표현된 밭 또한 당대의 농경방식에 대한 가시적 증거라는 점에서 귀중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서 남한의 여러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기원전 1천년기 전반의 밭 유구가 확인되기까지 당대의 경작유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었다. 또한 청동기의 문양 모티브로서 밭을 택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중요한데, 왜 많은 소재 중에 하필이면 밭 농사 장면 그것도 밭을 표현하였는가이다. 농경생활의 장면이 묘사된 예가 적지 않은 일본 야요이시대 청동기 동탁에도 밭을 표현한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한반도 주민의 사고관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당대의 사고관념 혹은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이 농경문 청동기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뒷면의 나무와 새 그림이다.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는 그림이 묘사되어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삼국지 동이전 한전 기록에 전하는 소도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또한 20세기의 농촌마을 어귀에 있는 솟대와 비교하기도 하여서 역사민속학적으로 중요한 연구자료이기도 하다.

생업 중에서 어로나 수렵 행위를 묘사한 자료로서 암각화가 전한다. 그것은 이미 구석기시대 이래로 인류가 채택하였던 식량자원 획득방법으로 농경과 비할 수 없다. 농경은 서구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선사시대에서 혁명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농경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선사시대의 유일한 자료로서 중요하다.

또한 암각화와 같은 음각의 선묘사 수법이기는 하나, 이는 바위에 단순히 새기는 수법으로 문양을 장식하였지만, 농경문 청동기의 경우는 모형에 새긴 것을 본을 떼서 거푸집을 만들고 그 틀에 청동물을 부어 만든 수공업의 공정을 거쳐 만든 것이다. 따라서 당대의 첨단 야금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같은 음각의 문양시문 기법을 전혀 다른 재질에, 다른 제작방식으로 구현하였다는 점도 귀중하게 살펴볼 일이다.

청동기를 주조할 때 모형으로 보면 음각기법, 거푸집으로 보면 양각 기법으로 문양이 장식된 예는 이 시대의 몇몇 청동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역사시대에 들어와 모형에 음각으로 모티브를 표현한 것은 그 모티브가 문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주조공정을 끝내고 완성된 청동기 겉면에 음각하기도 한다.

거푸집의 본을 뜨는 모형에 주문양을 음각하는 수법을 구사한 청동기는 아산 남성리의 방패형 청동기와 검파형 청동기, 예산 동서리의 나팔형 청동기, 그리고 전 경주 출토 견갑형 청동기 등이 전한다. 이들 청동기의 문양을 보면, 사슴, 호랑이 등의 동물 모티브가 주종을 이루고, 사람의 손을 표현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문양을 표현하는 사례는 멀리 유럽의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한 것으로서, 반복해서 말하면 농경행위의 장면을 묘사한 사례는 드물다.

농경문이 장식된 청동기는 일본에서 야요이시대에 전한다. 기원 1세기 이후의 일본 긴키지역에서 출토하는 동탁의 몸체에 농사를 짓거나 절구질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사례가 있다. 그 시기는 이 청동기보다 수백년 뒤로 같은 농경문이라 하더라도 보여주는 시대의 역사성에 큰 차이가 있다.

문양수법을 보면 일본의 사례는 거의 양각으로 표현되었는 바, 농경문청동기가 모형에 음각하는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거푸집에 직접 음각한 점에서 공정이 단순하다. 복잡한 공정을 거치면서 일부러 음각표현수법을 구사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연구할 과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하겠다.

한편 농경문 청동기의 테두리 문양은 주 모티브 문양과 표현기법이 다르다. 테두리 문양은 평행집선문, 방격문, 사격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거푸집에 도장 찍듯이 하여 문양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문수법은 청동거울의 배면에 기하학문양을 시문한 경우와 다르다. 기하학문경의 문양선은 전부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거푸집 자체에 음각으로 문양을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청동기는 출토 위치나 출토맥락이 전하지 않는데, 발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의 사례로 보아 방패형동기와 같이 나오는 청동기로서 세형동검, 조문경과 검파형동기 등이 있어 대체로 기원전 3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방패형 동기는 기본적인 형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 차이가 있다. 우선 농경문청동기 경우 한면에만 달려 있는 새끼고리가 남성리의 경우 앞뒤면에 달려 있다. 또한 동서리의 경우, 방패형동기의 외곽 모서리가 과장되고 그 끝에 방울이 달려 있는 차이가 있다. 대전 괴정동의 사례가 가장 단순한 형태에 문양도 테두리에 비교적 거친 문양대만 있어 가장 이른 형식이고, 농경문 청동기는 그 다음 형식으로 추정된다.

기하학문경의 사례와 같은 꼭지가 있어 새끼모양의 고리를 매달았는데, 고리를 일단 먼저 제작하고, 고리모양의 거푸집에 연결하여 주조하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을 무릅쓰고 이 고리를 만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아직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상면에 구멍이 5개 뚫려 있어서 이를 통하여 끈으로 결박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고리가 달린 면을 앞면이라 하고, 오목하게 휘어 있는 형태를 이루어져 있어 의복에 매단 것으로 일단 이해된다.

<참고문헌>

한병삼, 「농경문청동기에 대하여」, 『고고미술』 112, 1971.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청동기문화』, 범우사.

□ 관계전문가

청동의기로 추정되는 유물로 하반부가 결실되었으나 대단히 정교하게 만든 유물이다. 현재 비교할 수 있는 유물로는 대전시 괴정동석관묘에서 출토된 방패형동기가 있다. 방패형청동기의 상반부와 동일하나, 몸체 내의 문양 등 세부 장식이 같은 예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누가 있는 쪽과 다른 면 모두 각기 다른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대전의 고물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하반부가 결실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유물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청동기시대 청동 유물로는 국보 제137호 大邱飛山洞 出土 銅器類, 국보 141호로 지정된 숭실대학교 소장 다뉴세문경, 국보 제146호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한 청동방울일괄, 역시 리움소장의 국보 제255호인 전 충남출토 청동방울 일괄,

국보 143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和順大谷里出土 靑銅遺物이 있다. 기존의 국보로 지정된 청동 유물 중에서 농경문 청동기와 같이 인물, 새, 등이 다채롭게 표현된 경우는 없다. 일본 동경국립 박물관 소장의 견갑문동기에 화살에 맞은 사슴 등이 그려진 예가 극히 일부 전할 뿐이다.

문자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의 사회상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출토 유물이 긴요한 자료가 된다. 농경문청동기는 기존의 청동기 유물 중에서도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 생각된다.

○ 내용 및 특징

농경문 청동기는 폭이 12.8cm로 전체적으로 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랫부분은 결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몸체 윗부분에는 6개의 네모난 구멍이 같은 간격으로 뚫려 있다. 이 구멍들이 조금씩 마모된 흔적이 보여 이 구멍을 통해 끈을 매달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포수가 있는 면과 없는 면 모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양면 모두 가장 자리에는 線文과 格文이 음각기법으로 배치되어 있다. 포수가 있는 면의 중앙에는 음각선이 표현된 좌우에 모두 나무에 앉아 있는 새가 표현되어 있다. 왼쪽에는 양쪽으로 갈라진 나무 끝에 각기 새가 한 마리씩 앉아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하단부가 결실되어 자세한 표현은 알기 어려우나 새 한마리가 나무에 앉은 모습으로 추정된다. 새는 꼬리가 긴 새로 까치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의 하단부에는 3 갈래의 금속실로 마치 새끼 모양처럼 꼬인 둥근 고리가 끼워져 있는 鈕가 한 개 달려있다. 이 뉴 부분에서 발견된 철녹으로 보이는 자국은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반대편에는 역시 중앙의 격문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벌거벗은 남성이 따비와 같은 연장을 다루는 모습이 보인다. 그 밑으로 횡으로 된 선문이 촘촘히 그어 있어 밭을 연상하게 한다. 이 인물과 밭을 조합해 보면 밭을 따비로 일구는 농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 아래에는 꿩이 같은 것을 치켜든 인물이 있으나 아래 부분이 결실되어 있다. 좌측에는 한 손에 무엇인가를 든 인물과 그 앞에 사격문이 묘사된 항아리가 1개 놓여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있다. 이 항아리는 흑도장경호를 연상시키는 기형인데, 몸체에 장식된 사격문은 춘천 천전리, 가평 연하리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대형 저장용의 용기에 보이는 격자문과 유사하다, 이는 항아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끈으로 묶어 사용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문양의 성격으로 보아서 농경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기로 판단된다. 실제 사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농경문청동기의 앞뒷면이 편평하지 않고 뉴가

달린 면이 약간 위로 올라간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6개의 네모난 구멍을 연결하면 일직선이 아니라 가운데 구멍 2개를 중심으로 점차 위로 올라가게 뿔려 있다. 이는 다뉴세문경과 같이 목 아래 부분에 펜던트와 같이 걸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구조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구조방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과 새 등의 주문양은 양각으로 그리고 가장자리의 선문과, 발이나 항아리의 격자문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 농경문 청동기가 구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세한 구조 방식은 추후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뉴세문경보다 제작 기술이 앞선 것으로 판단되어 3세기말에서 2세기로 그 시대를 편년해 볼 수 있다.

○ 근거 기준

농경문 청동기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의 청동기의 제작 수준과 더불어 당시 농경의 발달 양상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농경문 청동기에 보이는 따비는 기원전 1세기에 출토된 다호리 1호분 목곽묘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다호리 1호묘의 따비는 폭이 좁고 길며 날의 단면이 납작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발의 형태는 진주 대평리의 발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고랑과 이랑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의 농경을 사실적이고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농경문청동기는 주목되는 유물이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청동기시대 청동 유물로는 137호 大邱飛山洞 出土 銅器類, 141호로 지정된 송실대학교 소장 다뉴세문경, 제146호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한 청동방울일괄, 역시 리움소장의 255호인 전 충남출토 청동방울 일괄, 143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和順大谷里出土 靑銅遺物이 있다. 이들 유물들에 비해 농경문청동기는 제작기법이나 세부 문양 표현이 있어 그 정교함이 뒤떨어지지 않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00선』, 2006.

2.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가. 심의사항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2.10.2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9.24)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 제1차 회의(2.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3.5~4.3)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94호(2008.12.16)
- 명 칭 :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 : 장안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 수 량 : 3구, 복장유물(발원문 2점, 중수문 1점, 후령통 1점)
- 규 격 : 석가여래 높이 139.3, 무릎 폭 86.0
약사여래 높이 109.5, 무릎 폭 69.5
아미타여래 높이 103.5, 무릎 폭 64.5
- 재 질 : 석조
- 조성연대 : 조선 1659년(효종 10) 조성, 1703(숙종 42) 중수
- 제작자 : 鹿元, 明峻, 覺崙, 覺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장안사 석조삼세불좌상은 조선후기의 조각승 녹원이 수조각승을 맡아 세 명의 보조 조각승과 함께 1659년에 제작한 작품으로서 불석으로 제작된 조선후기 불상들 가운데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조선시대 17세기 중엽의 조각승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조각적으로도 뛰어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기장 장안사의 석조삼세불좌상은 17세기 불상의 가장 보편적인 재료인 나무가 아니라 불석으로 제작되었다. 조선후기 불상의 재료로 새롭게 등장한 불석은 17세기 전반부터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18세기 후반~19세기 무렵이다. 18세기 후반~19세기 불석으로 만든 불상의 크기가 통상 30~50cm의 작은 크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안사의 삼세불은 크기가 100~140cm에 달해 불석 중에서는 큰 크기이다. 현재 불석으로 만든 불상은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등지의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불석의 산지가 구룡포, 감포, 양남 등 동해안에 있어 뱃길로의 수급이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석가, 약사, 아미타의 삼세불은 비교적 많은 예가 남아있지만, 기장 장안사의 석조삼세불상은 불석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몇몇 나발이 손실되기는 하였지만, 파손된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이며, 복장발원문을 통해 1659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17세기 불상의 또 하나의 기준작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장안사 석조삼세불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수화원 鹿元이 활동하던 17세기 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과정에서 크게 소실된 불교의 재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크고 작은 규모의 불사가 행해졌다. 그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불전(佛殿)과 불상의 제작 수에서 확인된다. 특히 이 시기에 조성된 불상들은 조각 유풀을 논할 만큼 대표적인 화승군(畫僧群)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많은 수의 작품을 남겼다. 기장 장안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한 녹원은 대화원(大畫員)으로 지칭될 만큼 뛰어난 조각승

이었지만, 이 시기 크게 활약한 조각승들에 비해 확인되는 작품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작품은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을 비롯하여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그리고 웅천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현 해인사 명부전 봉안) 등이 알려져 있고, 이 작품은 이 보다 4년 앞서 제작한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상의 형식과 양식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다. 이 삼불상은 성주사 불상에 비해 완성도 면에서 약간 떨어져 보이지만, 그것은 재질적인 차이와 개금 수준 등의 기술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장 장안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17세기 중엽 경에 활약한 대화원 녹원의 두 번째 작품이며, 불석제로 만든 작품 중에서는 양산 원효암 석조약사여래좌상(1648년 작), 이른 시기의 작품에 해당한다. 조성연대와 조성작가 밝혀진 17세기 중·후반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자 불석제 불상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시점에 제작한 불상으로써 불상 재료 연구에도 흥미로운 자료이다. 따라서 불상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보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부산광역시 동북쪽에 위치한 기장군의 불광산(佛光山) 자락에 있는 장안사(長安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인 통도사(通度寺)의 말사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효종 5년(1654)에 대웅전(보물 제1771호)이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식 건물로 건립되었다. 이 대웅전에는 중앙의 석가여래상을 본존으로 하여 향 우측에 약사여래, 향 좌측에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석조삼세불좌상(도 1)이 봉안되어 있다.

석조삼세불좌상은 2006년에 개금하는 과정에서 복장이 조사되어 조성발원문(1659년)이 본존 석가불상과 약사여래상에서 발견되었고, 개금발원문(1703년)이 본존상에서 나왔으며, 『법화경』(1649년 通度寺刊)은 각 상에서 나왔는데 후령통은 약사여래상에서만



도 1. 장안사 석조삼세불좌상, 조선시대 1659년, 부산 기장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보살진언(菩薩眞言)』,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와 같은 다라니가 발견되었다(표1). 조성발원문에는 불상조성에 동참한 여러 승려들과 신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불상제작에 녹원(鹿元)이 수(首) 조각승을 맡고 명준, 학륜, 각인

이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본존 석가여래좌상(도 2)은 둥근 머리 위에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반달형 중계주가 표현되어 있고 이마가 편평하다. 턱이 짧은 방형의 얼굴은 콧날이 우뚝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큼직한 입에서 단엄하면서도 자비로운 상호(相好)가 잘 나타난다. 삼도는 목의 아래쪽에 음각되어 있고 좁은 어깨 위에 오른쪽 어깨를 살짝 가리는 변형 편단우견[涼州式 편단우견]의 형식으로 입은 두꺼운 대의(大衣)에는 넓은 띠모양의 옷주름이 새겨져 있다. 편평한 가슴에는 내의 주름이 꽃잎처럼 올려 접혀진 모습으로



도 2. 장안사 본존 석가여래좌상

새겨져 있고, 결가부좌한 오른발을 덮은 치마[裙]자락은 V자형으로 늘어져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내려서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목재로 따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운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맞댄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본존상 왼쪽의 약사불좌상은 본존상보다 25cm 정도 작지만 얼굴과 두부의 표현은 본존상과 거의 똑같다. 다만, 가사를 2벌 겹쳐 입은 이른바 이중착의형식[변형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었고 가슴에 표현된 내의도 중간부분이 사선으로 접혀진 수평형태로 표현되었다. 양 손은 목재로 제작해서 손목에 끼웠는데 엄지와 검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결하고 약합을 올려놓기 위해서 오른손은 무릎에 닿도록 하였다.

그밖에 대의가 두껍고 옷주름이 넓은 띠모양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것은 본존 석가여래상과 동일하다.

본존상 오른쪽의 아미타불좌상은 앞의 약사여래상보다도 크기가 5cm 작다. 얼굴의 이목구비와 두부의 계주 표현은 본존석가여래상이나 약사여래상과 동일하다. 대의는 약사여래상과 마찬가지로 이중착의형식으로 입었고 내의도 중간부분이 사선

으로 접혀진 수평형태로 표현되었다. 양 손도 목재로 제작해서 손목에 끼웠는데 오른팔을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댄 설법인(하품중생인이라고도 부름)을 결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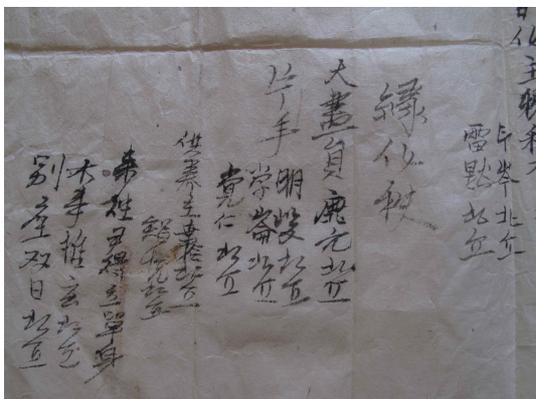
삼세불좌상은 경주에서 채굴되어 흔히 경주불석(zeolite)이라고 불리는 석재로 조각되었으며 불석으로 제작된 조선후기 불상들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다. 불석은 연질이어서 목조각에 사용되는 도구로 조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조각가들이 즐겨 사용한 재료이다. 불석으로 제작한 불상들은 재료의 성격 때문에 도우(道祐)가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송림사 석조아미타삼존불상>(1655년)에서처럼 양 손을 몸에 붙인 모습으로 조각되는 것이 보통인데(도 3), 이보다 4년 뒤에 조성된 장안사의 삼세불좌상에서는 손을 나무로 제작하여 끼워 넣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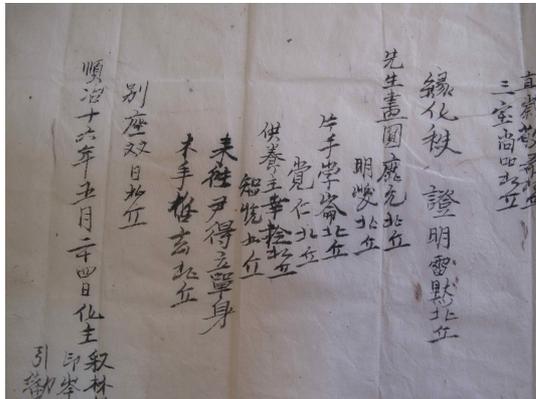
도 3. 송림사 석조아미타불좌상, 조선시대 1655년, 조각승 도우, 경북 칠곡

삼세불좌상 가운데 본존 석가여래상과 약사여래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보이는 「慶尙左道蔚山南面佛光山張安寺佛像施主秩目...(중략)...順治十六年己亥五月二十四日...(중략)...緣化秩 大畫員鹿元比丘 片手 明峻比丘 學崙比丘 覺仁比丘」라는 기록을 통해 이 삼세불상이 처음부터 장안사에 봉안하기 위해 순치 16년(1659)에 조성된 상이라는 사실과 그 제작에는 수조각승인

녹원과 명준, 학륜, 각인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녹원은 ‘대화원(大畫員)’으로 보조 조각승들은 ‘편수(片手)’로 표현한 점이 흥미롭다(도 4). 또한 약사여래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녹원을 “선생화원(先生畫圓)”으로 표현하여 수조각승임을 나타내고 있다(도 5).



도 4. 조성발원문(석가여래좌상) 부분



도 5. 조성발원문(약사여래좌상) 부분

수조각승을 맡은 녹원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조각승으로 장안사 삼세불상을 제작하기 4년 전인 1655년에 수조각승으로 창원 성주사 목조삼세불좌상(보물 제 1729호, 도 6)을 제작하였다. 이 삼세불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녹원의 가장 이른 작품으로 장안사 삼세불상과는 재료의 차이가 있으나 방형의 얼굴과 우뚝한 콧날, 자비로운 상호, 착의형식, 옷주름, 수인 등의 표현에서 장안사 삼세불상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녹원은 1673년 수조각승 자수(自修)를 도와 진해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현재 해인사 명부전에 봉안)을 조성했다. 녹원의 지휘 아래 장안사 삼세불상의 제작에 참여했던 세 명의 조각승 가운데 차조각승 명준은 이후 호남지역에서 조각승으로 활발하게 활약했던 듯하다. 1666년 수조각승으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을 중수하였고 1674년에는 보림사 시왕상을 제작하였으며 1676년에 선운사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다. 제 3위 조각승인 학륜은 1655년 녹원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창원 성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의 제작에 참여한 10명의 보조조각승 가운데 제 8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했다. 1684년에는 수조각승 단응(端應)을 도와 예천 용문사 목각탱을 제작했고 1687년에는 수조각승 탁밀(卓密)과 영월 보덕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을 제작했다. 제 4위 조각승 각인은 1673년에 수조각승 자수 밑에서 녹원과 함께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장안사 석조삼세불좌상은 녹원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두 번째 작품이고 동시에 녹원과 그의 보조 조각승들이 제작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석조불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존 석가여래상 복장에서 발견된 강희 42년(1703)의 중수문에는 개금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불상이 처음 제작되고 44년 만에 개금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개금에는 금문(金文), 세균(世均), 취습(就習), 종념(宗念)의 네 명의 승려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금문은 1650년 혜희(惠熙)가 수조각승을 맡았던 김제 금산사 대장전 불상에 참여한 금문과 동일인라면 장안사 삼세불상을 개금한 1703년에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균은 장안사 삼세불상을 개금하고



10년 뒤인 1713년에 문경 대승사 목조지장보살상을 개금하고, 1723년에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불상을 개금했던 것으로 보아서 개금작업을 활발하게 했던 조각승으로 생각된다.

도 6. 창원 성주사 목조삼세불좌상, 조선시대 1655년, 수조각승 녹원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기장 장안사 대웅전의 수미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이 석조삼세불좌상은 중앙의 석가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좌상과 아미타불좌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의 석가불은 크게, 좌우 협시불은 상대적으로 작게 조성하는 삼세불의 구성은 17세기에 유행하던 형식 중 하나이다. 현재 보존 상태는 양호한데, 나발(螺髮) 몇 개가 손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다. 이 삼세불좌상은 특히 17세기에는 그 예가 흔치 않은 불석(沸石,佛石)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통상 불석은 18세기 후반~19세기에 불상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19세기의 불석으로 만든 불상의 크기가 30~50cm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석가불 140cm, 좌우 협시불 100cm 가량은 상당히 큰 규모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장안사의 대웅전뿐 아니라 1684년에 조성된 명부전과 응진전의 상들 역시 모두 동일한 불석으로 조성된 것인데, 이는 이곳 기장이 불석의 산지인 감포(기림사 일대)나 동해 등지로부터 수급이 원활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삼세불의 경우 양 협시불인 아미타불과 약사불의 팔 모양을 서로 대칭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안사의 삼세불은 조선후기 삼세불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는 있으나, 좌협시불인 약사불의 왼손이 우협시불인 아미타불의 오른손보다 낮게 제작하여 정확한 대칭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 삼세불의 손은 중앙 석가불의 오른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무로 손을 따로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보통 목조의 경우 팔은 몸체와 함께 조각하고, 팔목 부분에 별도의 구멍을 파두고, 손을 따로 제작하여 삽입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 삼세불은 석조이지만 목조불상과 같이 손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중앙의 석가불과 우협시불인 아미타불은 크기만 다를 뿐 얼굴모습, 옷주름 등이 거의 동일한 모습이다. 반면 좌협시불인 약사불은 양손의 높이, 얼굴 모습이나 옷주름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이런 이유로 장안사의 삼세불은 좌우 협시불인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서로 완전한 대칭을 이루지는 않는다.

중앙 석가불의 대의는 오른쪽 어깨가 대의로 덮여 있는 변형된 편단우견 형식이다. 하반신은 넓고 두텁게 표현되어 있는데, 왼쪽 무릎 위에는 나뭇잎 모양의 옷주름이 있어 특징적이다. 왼손은 손등을 바닥으로 하여 왼발 위에 올려 두었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오른 다리 위에 두었다. 17세기 불상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얼굴 모습이다. 17세기 불상의 얼굴 모습은 서로 유사한 듯 보이지만, 방형 혹은 원형의 얼굴 윤곽이라든지, 얼굴 양감의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장안사 삼세불은 넓은 이마, 짧은 턱, 방형의 각진 얼굴이 특징이다. 특히 눈두덩이가 두툼한 모습은 인상적이다. 육계는 넓적하여 머리와 구분되지 않으며, 반달형의 중심계주와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이 삼세불좌상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장물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2월 이 삼세불좌상의 개금 당시 석가여래좌상에서는 복장발원문을 포함한 5종류 총 179점이, 약사여래좌상 역시 복장발원문을 포함한 5종류 총 119점이, 아미타여래좌상에서는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118장의 『묘법연화경』이 발견되었다. 석가여래좌상과 약사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은 내용이 동일한데, 1659년 鹿元, 明俊, 學崙, 覺仁이 장안사의 삼세불상을 조성하였음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이 중 녹월은 1673년 합천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 조성에도 참여하였던 인물이어서 그의 활동범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 조사내용

장안사는 기장군 장안읍 불광산 기슭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장안사는 673년(문무왕 16) 원효가 창건하여 쌍계라 하였으며, 신라 제40대 애장왕이 다녀간 뒤 장안사라 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다. 『오정선생유고(鰲亭先生逸稿)』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38년(인조 16) 태의(太義)가 중건하였고, 1654년(효종 5)에는 원종·학능과 충목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1948년에 각현이 중수하였다고 한다.¹⁾ 2009년 장안사 대응전 조사에서 발견된 종도리 묵서명에 의하면 1657년에 중건되었고 하여 사건의 기록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일치한다.

석조삼세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長安寺佛像施主秩目’에 따르면, 順治 16년(1659, 효종10)에 大畫員 鹿元(또는 鹿苑)을 비롯한 明峻, 學崙, 覺仁 등 3명의 조각승이 공동으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大畫員 鹿元은 이 불상 제작에 앞서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고, 이외에 경남 웅천 성흥사 목조지장시왕상(현재 해인사 봉안, 1673년)을 수조각승 自修와 함께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조각승 명준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1666년에 전남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을 중수하였고, 1674년에는 같은 사찰 시왕상을 제작하였다. 또 1676년에는 고창 선운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다. 세 번째 조각승 학륜은 1684년에 예천 용문사

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256.

대장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제작하였으며, 1687년에는 탁밀을 도와 강원 영월 보덕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조성에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한 바 있다. 네 번째 조각승 각인은 경남 웅천 성흥사 목조지장시왕상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불상의 중수는 제작한지 44년 뒤인 1703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참여한 조각승은 金文, 世均, 就翬, 宗念이 참여하였다. 금문은 1650년 김제 금산 대장전 불상과 1662년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상 조성 때 혜회를 도왔으며, 1668년에는 승일을 도와 김천 직지사 비로전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706년에는 수조각승으로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조성하였다.

장안사 대웅전 삼불상은 방형의 수미단 위에 양·북련의 연화좌에 결가부좌하였다. 이 삼불상은 도상적으로 현재의 사바세계를 주재하는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동방유리광정토의 교주 약사여래와 서방 극락정토의 교주아미타불을 배치하여 시·공간적 삼세불상의 도상형식을 보여준다. 이 시기 조성된 통상의 삼세불상은 변형의 우견편단을 걸친 降魔觸地印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수인을 달리 표현하여 좌우대칭의 전형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삼존은 모두 육계가 드러나지 않는 반구형의 머리, 따로 제작하여 부착한 불규칙적인 나발, 이마가 넓고 턱 부분이 좁은 역 사다리꼴의 넓적한 얼굴형태, 수평으로 처리한 눈, 낮은 코 뿌리에서 갑자기 돌출시킨 큼직하고 우뚝한 삼각형의 돌출 코, 딱딱하게 처리한 인중과 입술, 짧은 턱 그리고 굽은 원통형의 목에 형식적으로 처리한 삼도, 두터운 대의에 표현된 강약과 변화가 약한 단순하고 강직한 주름 등 표현 기법이나 조각양식에서 거의 동일한 수법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인의 형태, 신체비례, 착의형식, 주름 및 얼굴 등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조각하였다. 우선 본존 석가여래는 좌우 협시불과 달리 변형의 편단우견으로 착의하고, 가슴에 드러난 균의의 자락은 꽃모양으로 주름을 잡았다. 한번 뒤집은 목깃은 양어깨 끝에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은 뾰족하게 반전시켜 새의 날개처럼 처리하였다. 왼쪽 어깨에는 어깨의 굴곡을 따라 수직으로 직선과 Y형의 주름만으로 처리하여 간결함을 강조하였다. 양 무릎의 단면은 무릎의 끝 부분을 약간 볼록하게 처리하여 장구모양을 띠며, 무릎 주름은 발목을 덮어 내린 부메랑 모양의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몇 개의 좁은 띠 주름을 잇대어 중첩시켰다. 왼쪽 무릎의 여백에는 형식화된 잎 모양의 소매 자락을 드리워 단순함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17세기 후반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이다.

본존불에 표현된 양식적 특징은 좌우협시 불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만, 차이점도 다소 확인된다. 우선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은 착의형식이다. 협시불상은 본존불상의 변형의 편단우견과 달리 두 장의 대의를 걸쳤고, 승각기 역시 사선으로 한번 접어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왼쪽 무릎에 표현된 형식화된 잎형의 소매 자락도 세구의 불상모두 달리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다.

다음으로 비례와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본존불은 넓은 무릎 폭에 비해 짧은 허리와 당당한 어깨로 인해 중량감이 느껴지나, 이에 비해 우협시 불상은 좁은 무릎 폭, 길어진 허리 등에서 중량감이 떨어진다. 얼굴 모습 또한 본존과 우협시 아미타불상은 거의 같은 모습이지만, 좌협시 약사불상은 콧등이 각이져 있고 비공(鼻孔)도 있는 듯 없는 듯 형식적으로 표현하여 차이가 있다. 수인에 있어서도 대체로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협시들이 엄격한 좌우대칭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 삼세불상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좌우대칭의 구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 즉 좌협시 약사불상은 두 손을 무릎 바로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나, 우협시 아미타불상은 왼손은 어깨까지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같은 시기 같은 조각승 집단에서 조성된 불상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현상은 비단 이곳 장안사 삼세불상 뿐만 아니라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삼존불상,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등에서도 보이는 바, 이는 조각승들 간의 공동 작업에서 오는 조각적 역량, 취향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짙은 개금 타트로 상호는 가면을 쓴 듯 다소 무표정하게 보이고, 신체의 구성 역시 특히 블록을 쌓듯이 처리하여 평담한 맛을 보여준다. 17세기 전반기 불상에 비해 높아진 무릎, 강직한 직선과 곡선의 선만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옷 주름의 표현 등은 17세기 후기 불상들과 양식적 경향을 같이 하고 있다.

○ 복장유물 목록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석가여래좌상	1	발원문 [불상시주질목]	백지 묵서	1	1659년	50.6x40.7	*慶尙左道蔚山府南面佛光山張安寺佛像施主秩目 供養布施占大施主永眞靈駕...
	2	중수문	백지 묵서	1	1703년	62.7x32.4	*重修文 康熙四十二年癸未六月日石佛三尊重修 塗金于佛光山長安寺奉安 黃金大施主 進點比丘...
약사여래좌상	3	발원문	백지 묵서	1	1659년	50.2x39.2	*慶尙左道蔚山府南面佛光山長安寺佛像施主秩 供養布施占大施主永眞靈駕...
	4	후령통	동	1	1659년경	높이17.5 지름 3.5	*조성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됨. *후령통은 길쭉한 원통형이며, 뚜껑에는 좁고 긴 후혈이 부착되었다. 후령통은 백색의 폭자에 쌓여 있다. 후령통 내에는 오보병이 오색사에 감겨 안립되어 있고, 팔엽으로 접은 양면원경과 사방경 중방경과 원경이 남아 있다.
계			4건 4점				

1. 석가여래좌상 [불상시주질목]

○ 크기 50.6×40.7cm

慶尙左道蔚山府南面佛光山張安寺佛像施主秩目

供養布施占大施主永眞 靈駕
供養腹藏占大施主彦浩 比丘
供養大施主妙問 比丘
布施大施主海蓮 比丘
供養大施主孫者斤伊 單身
供養大施主恁春 兩主
供養大施主吳哲伊 兩主
供養大施主李貴生 兩主
朱紅大施主等辛善補兩主
食盤大施主李貴生 兩主
奉化

順治十六年己亥五月二十四日化主秩 釋林比丘
印岑比丘
雷默比丘

緣化秩
大畫員 鹿元比丘
片手 明峻比丘
學崙比丘
覺仁比丘
供養主 幸捻比丘
智悅比丘
來往 尹得立單身
木手 哲玄比丘
別座 双日比丘」

(하단)
寺內
桂軒比丘

千性比丘
首僧 性宗比丘
直事 敬希比丘
三剛 宗嚴比丘」

2. 석가여래좌상 [중수문]

○ 크기 62.7×32.4cm, 1703년

「重修文

康熙四十二年癸未六月日石佛三尊重修

塗金于佛光山長安寺奉安

黃金大施主 進點比丘

供養大施主通政大夫處明比丘

黃金大施主 日梅比丘

供養大施主崔清立兩主

布施施主崔玉龍 兩主

布施施主道悅 比丘

供養施主思遠 比丘

供養施主秋龍山 兩主

布施施主通政金戒立兩主

供養布施主末醬大施主通政大夫雪摠比丘

供養施主女尹貴辰保休

腹藏經施主草澗 戒澄比丘

緣化秩

證明 竺卞比丘

持殿 道林比丘

塗金善手良工供養嘉善大夫 金文比丘

世均比丘

就習比丘

宗念比丘

願以此功德

供養主海文比丘

普及於一切

拾悅比丘

當生極樂國

萬善比丘

皆共成佛道

別座通政雪摠比丘

化主一文一環引勸懷默比丘

來往居士 信琦兩主
 愍令大都監通政大夫處明比丘
 打金匠人金太萬兩主」

3. 약사여래좌상 [불상시주질]

○ 크기 50.2×39.2cm

「慶尙左道蔚山府南面佛光山長安寺佛像施主秩

供養布施占大施主永眞靈駕	寺內秩
供養腹藏占大施主彦浩比丘	山中大德戒軒比丘
供養大施主妙罔比丘	元習比丘
布施大施主海蓮比丘	料性比丘
供養大施主恣春兩主	首僧性宗比丘
供養大施主吳哲伊兩主	直歲敬希比丘
朱紅大施主辛善福兩主	三寶尙嚴比丘
供養大施主李貴生兩主	
食塩大施主 奉化兩主	緣化秩 證明雷默比丘
布施大施主金稷伊保體	先生畫圓鹿元比丘
施主林奉益保體	明峻比丘
施主郭慶秀兩主	片手學崙比丘
施主李鐵顯伊兩主	覺仁比丘
黃蜜施主春立兩主	供養主幸捻比丘
清蜜施主秀介兩主	智悅比丘
玄學比丘	來往尹得立單身
法菜施主金永男兩主	木手哲玄比丘
處益比丘	別座双日比丘
佛暎通施主一洽比丘	順治十六年五月二十四日化主 釋林比丘
圃園施主鄭多音沙伊兩主	印岑比丘
釋還比丘	引勸雷嘿比丘」

4. 약사여래좌상 후령통

○ 높이 17.5cm, 지름 3.5cm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안건번호 등산 2014-03-003

3. 보물 제1190호 ‘전 오자치 초상(傳 吳自治 肖像)’ 지정명칭 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190호 ‘전 오자치 초상’의 지정 명칭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제1190호 ‘전 오자치 초상’의 지정명칭 변경에 대한 소유자 민원이 제기 되어 지정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 제1차 회의(2.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3.5~4.3)하고, 지정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인 : 문화재청장
- 대상문화재 : 보물 제1190호 ‘전 오자치 초상(傳 吳自治 肖像)’

지정 현황	문화재명칭	소유자 (소재지)	수량	연대	지정일
보물 제1190호	전 오자치 초상	나주오씨 대종회 (서울 중구)	1폭	조선 성종7년 (1476년)	1994/1/5

라. 변경 내용

- 전 오자치 초상(傳 吳自治 肖像) → 오자치 초상(吳自治 肖像)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명칭 변경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4-03-004

4. 국보 제96호 ‘청자 구룡형 주자’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 3점 국외반출 허가

가. 심의사항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2014년 한중일박물관 합동 기획특별전 예정인 “동아시아의 꽃 : 도자명품전” 전시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3건 3점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 대상문화재 : 국보 제96호 청자 구룡형 주자 등 3건 3점
- 반출국가 : 일본
- 반출기간 : 2014. 9. 10 ~ 2014. 12. 1
- 전시기간 : 2014. 9. 20 ~ 2014. 11. 24
- 전 시 명 : 2014년 한중일 기획특별전 - “동아시아의 꽃 : 도자명품전”
- 전시장소 : 도쿄국립박물관

라. 국외반출 대상 보존상태 등 현지조사 결과

- 목 적 : 반출대상 유물 보존 상태 등 조사
- 조사일자 : 2014. 4. 2(수) / 2014. 4. 4(금)
- 조사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 조사자 : 김재열위원, 강대일전문위원, 장남원전문위원

○ 조사자 의견

-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함
- 반출시 컨디션체크, 포장, 해포과정 및 전시 설치에도 각별히 유의 필요
-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보물 제1168호 ‘청자 상감매죽학문매병’의 경우 굽바닥 보조물 설치 필요에 따른 근본적인 위험과 전시 시각적 불편함 때문에 국외 전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조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여부 결정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①지정번호	국보 제96호	
②명칭	청자 구룡형 주자	
③수량	1건 1점	
④규격	높이 17.3cm	
⑤보관장소	국립중앙박물관	
①지정번호	보물 제344호	
②명칭	청자 양각갈대기러기문 정병	
③수량	1건 1점	
④규격	높이 34.2cm	
⑤보관장소	국립중앙박물관	
①지정번호	보물 제1168호	
②명칭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③수량	1건 1점	
④규격	높이 33cm	
⑤보관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접지면 보강, 전시기 안전 최우선 고려

IV.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등산 2014-03-005

5. 국보 제193호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慶州 九十八號 南墳 琉璃瓶 및 盞)’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국보 제193호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 4점 중 1점인 유리병의 접합제 열화 및 복원재료 황변화 현상으로 인한 유물 안전성 개선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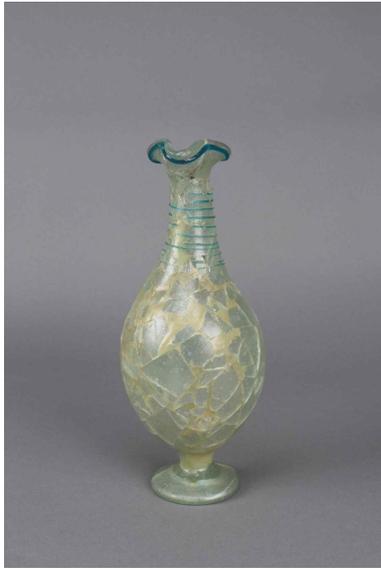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보 제193호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 중 유리병의 현상변경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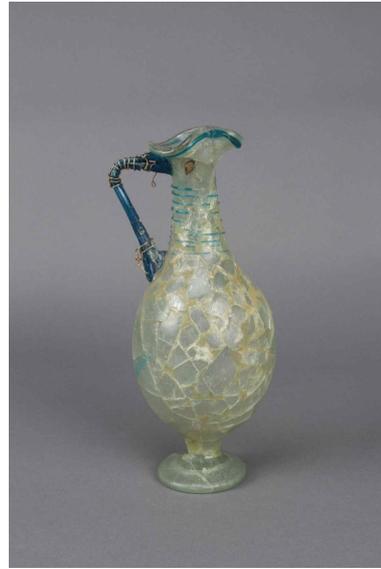
- 지정현황 : 국보 제193호
- 명 칭 :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 중 유리병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25cm, 배지름 9.5cm
- 재 질 : 유리
- 제작연대 : 삼국시대

라. 현 상태

- 30여 년 전 사용된 순간접착제와 에폭시 수지의 열화 및 황변화 현상이 진행됨
- 유리병의 안전성 및 전시효과 저하



정면



측면



복원된 부분 황변 현상(구연)



복원된 부분 황변 현상(동체)

마. 현상변경 내용

- 기 접착제 및 복원재료 제거, 신소재로 접합 및 복원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사진촬영 및 적외선, 현미경 관찰 등의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
- 기 접착제 및 복원재료 제거
 - 기존에 사용된 접착제와 황변된 복원부분을 아세톤에 침적하거나 미세도구를 사용하여 제거
- 접합 및 복원
 - 황변에 강하고 안정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원래의 유리병과 유사한 색감과 질감을 재현하여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복원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처리
- 보존처리 기간 : 2014. 5. - 2014. 10.(6개월)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현상 변경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4-03-006

1. 고려 십육나한도(高麗 十六羅漢圖)

가. 검토사항

‘고려 십육나한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고려 십육나한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8.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1.2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기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 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94호(2008.12.16)
- 명 칭 : 고려 십육나한도(高麗 十六羅漢圖)
- 소 유 자 : 현승훈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81번길 17 (남천동)
- 수 량 : 1폭
- 규 격 : 화면 세로 60.5cm, 가로 41.6cm
방제란 세로 19.2cm, 가로 1.9cm
화기란 세로 3.3cm, 가로 17.8cm
- 재 질 : 견본담채
- 조성연대 : 고려 1236년(고종 23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나한도는 십육나한도 중의 하나인 第七迦理迦尊者를 그린 것으로 1236년(고종 23)에 武官인 隊正 金義仁의 주관 하에 제작되었다. 화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온 국토가 유린당하던 시기에 나라의 태평과 왕의 성수만세를 기원하며 조성되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고려시대 나한도와 전체적인 표현양식 및 화기 등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고려 나한도는 모두 14점이다(표 2). 이중 14점은 오백나한도이며, 16나한도로 추정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제15아대다존자도와 이 작품뿐이다. 이 작품과 아대다존자도가 함께 조성되었는지, 또 이 2점의 16나한도와 오백나한도가 한 세트로 제작되었는가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본 치온인(知恩院)소장 오백나한도에 오백나한도와 16나한이 함께 그려져 있는 점, 화기의 형식이 거의 유사한 점 등을 보면 고려시대에 오백나한과 16나한이 한 세트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나한도는 현재 화면에 박락이 심하고 보수과정에서 일부 보건과 보채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가필이 됨으로써, 고려불화 특유의 탄력있는 필선 등은 많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조성된 불화가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그 예가 거의 없어, 이 작품은 고려시대 16나한신앙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나한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시기(1235년~1236년)의 나한도와 같은 세트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나한도와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나한도는 16나한도 중 하나인 제7존자인 가리가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고요하게 의자에 앉은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의 모습을 채색을 최대한 배제한 수묵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내었다. 이는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백나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16나한도의 도상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병신년에 그려진 것인데, 필선과 색채, 표현방식 등에서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제작된 고려 나한도와 거의 같은 畵記 내용과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인 丙申年은 1236년의 丙申으로, 다른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棟梁 金義仁 등 무인들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가 제작될 당시는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 위기의 상황으로, 국난 시

크게 베풀어졌던 나한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작된 사례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화는 고려시대 제작된 나한도와 16나한도 중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16나한도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第15 阿代(氏)多尊者와 이 작품이 유일하다. 따라서 국내·외에 현전하는 고려 나한도의 수가 극히 드물고 고려 불화가 대부분 14세기 대에 제작된 것인데 반해, 이 나한도는 13세기 전반인 1236년에 제작된 것이고 발원내용, 주관자 등을 기록하고 있어 고려 불화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비록 수리 과정에서 고쳐 그린 흔적이 다소 있으나 원형을 크게 왜곡하거나 지정 가치를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시기에 제작된 오백나한도와 16나한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6폭이 전하고 있어 이들도 함께 비교 조사하여 일괄로 지정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이 나한도는 화면구성상의 특징과 묵서되어 있는 존자명, 그리고 남아 있는 화기 일부로 미루어 보아 을미년-병신년(1235-1236년) 간에 일괄 조성된 1236년 작일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겠으나, 현존하는 예들과 그림의 숨씨를 견주어 보아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조성연대에 대해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고 바탕천의 박락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현존 예가 많지 않은 고려시대 나한도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명칭은 羅漢圖(第7 迦理迦尊者)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마. 의결사항

○ 보 류

- 국립박물관소장 고려나한도 비교조사 후 지정검토
- 사용안료 검토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1.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이 작품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나한도로서, 16나한 중 제7존자인 迦理迦尊者를 그린 것이다. 의자에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비구와 그를 시봉하는 侍者의 모습을 淡彩로 표현하였는데, 1매로 이루어진 비단바탕은 상당부분 박락되었으며 일부 補絹과 補彩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화면의 좌측(향우측) 상단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길게 旁題蘭을 만들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第七迦理迦尊者’라고 적었으며,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한 방제란 밖으로 다시 第七迦理迦尊者라고 적었는데 글자 역시 상당부분 박락되어 몇몇 글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존자는 백색 內衣 위에 장삼과 가사를 걸쳐 입고 팔걸이가 달린 등 높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머리에는 원형의 두광을 지니고 있으며, 두광은 윤곽을 길게 그리고 안쪽은 먹으로 바림질하여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존자의 오른쪽에는 젊은 侍者가 의자 뒤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존자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하여 주종 간의 차이를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가슴 앞쪽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소맷자락으로 감싸 덮였으며,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내밀어 옷자락을 잡고 있다. 드러난 두 발은 足臺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존자는 장년의 비구 모습으로, 파르라니 깎은 머리, 짙은 눈썹에 형형히 빛나는 눈, 콧망울이 넓고 큼직한 코, 꼭 다문 작은 입술 등이 수행자로서의 나한의 성격을 잘 나타내었다. 귀는 어깨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둥근 고리모양의 귀걸이를 착용했는데, 이러한 귀걸이 형태는 고려 오백나한도중 제92守大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第329 圓上周尊者, 제464 世供養尊者 등에서도 확인된다. 존자가 앉아있는 의자는 거의 존자의 머리부분까지 올라오는 높은 의자로서, 등받이 부분은 반원형으로 붉은 천으로 덮혀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연봉우리로 장식하였다. 의자 뒤에는 상체를 드러낸 시자가 존자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고 서있다. 시자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加彩가 되어 부자연스럽지만, 이목구비는 존자와 유사하다. 이처럼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존자가 앉아있고 옆에 시자가 서있는 형식은 고려 16나한도의 하나로 추정되는 제15 아대다존자도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두 작품은 존자가 발을 올려놓은 족대 또한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도상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채색은 옅은 갈색으로 화면 전체를 칠한 후 먹으로 윤곽을 그린 후 두광과 머리부분, 족대 등 일부분에 바림질을 가하여 濃淡을 표현하였으며, 의자 등받이부분 등에 부분적으로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또한 장삼 가장자리에는 짙은 먹으로 칠하여 농담을 이용한 입체효과를 표현한 반면, 자칫 단조롭기 쉬운 화면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화면 하단 중앙에는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단의 방제란처럼 윤곽선을 먹으로 그린 뒤 다시 붉은선을 둘렀다. 화기는 아랫부분은 잘려나가고 글자 또한 박락되었지만, 현재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國土□□」 聖壽□□」 太子□□」 令壽□□」 之願」 下□□□」 景□□□」 丙申□□」 棟梁□□」 金□□」

화기의 상당 부분이 잘려나가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丙申이라는 간지와 이 불화를 제작하는데 棟梁, 즉 시주를 모아 불화를 제작한 불사를 주관한 金씨의 이름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나한도의 화기는 1236년과 1236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려 나한도의 화기와 매우 유사하여 그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고려 나한도는 乙未年과 丙申年의 두 해에 걸쳐 일괄적으로 제작되었는데, 을미년 즉 1235년 제작으로 추정되는 것은 제23 천성존자, 제92 수대장존자, 제125 전보장존자, 제234 존자도, 제329 원상주존자 등 5점이고, 병신년 즉 1236년 제작으로 생각되는 것은 제145 회견존자, 제170 해군고존자, 제427 원원만존자 등 3점이 남아있다.

이들 화기와 가리가존자도의 화기를 비교해보면, 이 불화는 병신년, 즉 1236년에 隊正 金義仁이 주관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화제작 불사를 주관한 김의인은 武官으로, 군인 25명으로 이루어진 최하위 군사조직인 隊의 책임자였다. 그가 어떤 연유로 이러한 대불사를 계획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작품에서 화기 앞부분에 나라의 太平과 임금의 聖壽萬歲를 기원하거나 이웃의 병사가 물러가기를 바란다(제329존자도)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몽고군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유린되던 때에 나한의 신통력으로 몽고군을 몰아내고 나라가 태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武人의 신분으로 오백나한도와 16나한도 제작이라는 대불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고려 紀年銘 오백나한도>

	작 품 명	화 기	소 장 처
1	제23존자도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之願 有□□ 正羅□ 乙未十□ 棟梁[隊][正] 金[義][仁]	일본 東京國立 博物館
2	제92존자도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之願 司宰□□ 敞□ 乙未□□ 棟梁[隊][正] 金[義][仁]	國立中央博物館
3	제125존자도	國土[大][平] 聖壽[天][長] 太子千□ 令[壽][萬][年] 之 願 將軍□ 垡下 高光 乙未□ 棟[梁][隊][正] 金[義][仁]	國立中央博物館
4	제234존자도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 之願 洪茂下隊 李姓 乙未 七月[日] 棟梁隊[正] 金義仁	일본 大和文華館
5	제329존자도	伏惟 隣兵速[滅] 中外含□ 聖壽等[南]□ 令壽齊北□ 已 身延壽[命] 室內得椿齡 之願 都兵馬錄事李堯瞻 乙未十月 日棟[梁] 隊正金義仁	일본 一岩館
6	제145존자도	國土[大][平] 聖壽[天][長] 太子[千][載] 令壽[萬][年] 之願 君卿□ 將全□ 丙申 棟梁[隊][正] 金義[仁]	國立中央博物館
7	제170존자도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 之願 校尉□ 丙申□ 棟梁[隊][正] 金[義][仁]	國立中央博物館
8	제427존자도	國土大[平] 聖壽天[長] 太子千[載] 令壽[萬][年]之願 金□ 智□ 丙申十月 棟梁隊[正] 金義仁	國立中央博物館
9	제464존자도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 之願□ 鄭□ □ 棟□ 金[義][仁]	미국 클리브랜 드박물관

한편, 이 나한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7가리가존자라고 쓰여진 墨書에 의해 볼 때 16나한 가운데 7번째 존자인 가리가존자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16나한은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미륵불이 나타나기까지 涅槃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하도록 부처님께 위임받은 제자들로, 三界(과거·현재·미래)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三藏(경·율·논)에 통달하였으며, 특히 外典에 능하여 外道를 항복받고, 신통력으로써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하였다고 한다. 16나한에 대한 신앙은 중국 당나라 때 玄奘이 654년에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를 번역한 이후 크게 성행하였다. 『法住記』에 의하면 16나한 중 7번째 존자인 가리가존자(迦理迦, kalika)는 기상나한(騎象羅漢)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1,000명의 아라한과 함께 僧伽茶洲에 머무르며 불법을 행했으며 正法을 守護하고 중생을 이롭게

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遺事》 駕洛國記에 수로왕이 도움을 정한 뒤 “산천이 빼어나서 가히 16나한이 살 만한 곳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16나한에 관해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한에 대한 신앙이 성행한 것은 고려시대인데, 923년(태조 6) 태조가 梁나라에 보냈던 사신 尹質이 오백나한상을 가지고 귀국하자 해주 崇山寺에 봉안하게 하였으며, 왕실에서는 神光寺, 神穴寺, 外帝釋院, 王輪寺, 普濟寺, 神護寺 등에서 비오기를 기원하거나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國家設行的 羅漢齋를 자주 베풀기도 했다. 따라서 이 16나한도를 비롯해 국내외에 전하는 고려 오백나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작되었다.

<표2. 고려시대 나한도 목록>

연번	작 품 명	제작시기	규격(cm)	재 질	소 장 처
1	第23 天聖尊者	1235년	59.7×41.5	견본수묵담채	동경국립박물관
2	第31 王相尊者	1235~6년경		견본수묵담채	한국 개인
3	第92 守大藏尊者	1235년	58.0×41.0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4	第112 掌法盖尊者	1235~6년경	54.9×34.7	견본수묵담채	일본 개인
5	第125 辰寶藏尊者	1235년	55.2×38.8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6	第145 喜見尊者	1236년	59.5×42.0	견본수묵담채	일본 개인
7	第170 慧軍高尊者	1236년	54.0×37.2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8	第234 上音手尊者	1235년	55.1×38.1	견본수묵담채	일본大和文華館
9	第282 寶手尊者	1236년	54.6×31.7	견본수묵담채	한국 개인
10	第357 義通尊者	1235~6년경	52.8×36.8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11	第379 圓上周尊者	1235년	59.0×41.3	견본수묵담채	한국 개인
12	第413 傳聖住尊者	1235~6년경	53.3×36.7	견본수묵담채	일본 개인
13	第427 願圓滿尊者	1236년	58.6×40.7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14	第464 世供養尊者	1235~6년경	52.8×40.8	견본수묵담채	미국 Cleveland Museum
15	第7 迦理迦尊者	1236년	60.5×41.6	견본수묵담채	한국 개인
16	第15 阿代多尊者	13세기	53.8×39.7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전문위원

현재 고려시대에 단독의 폭으로 조성된 나한도 16폭 정도 알려져 있고, 그 중에 16나

한도는 2폭이다. 이들 작품들은 乙未年에서 丙申年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그림의 양식적 특징과 화기의 내용 등으로 보아 1235~1236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화는 ‘적병의 속멸(隣兵速滅)’, ‘국토의 태평(國土太平)’, ‘왕실의 수명장수를 발원하였으며, 불화제작의 주도층은 都兵馬錄事, 將軍, 洪茂下隊, 校尉, 隊正 등의 관직을 지닌 무신계층이며 이외 재가신도들도 일부 참가하였다. 주관자인 棟梁은 하급 군관인 隊正의 직책을 가진 金義仁으로 확인된다. 대정은 고려 때 무관 벼슬의 하나로 2군 6위에 각각 40인을 두었고 종9품에 해당하는 최하급 군관이다. 따라서 이들 나한도들은 무신정권 아래 무신들에 의해 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시대에는 무량 공덕사상과 관련하여 스님들에게 음식공양을 올리는 飯僧의식과 더불어 佛弟子에기 齋를 올리는 羅漢齋가 크게 성행하였다. 특히 나한신앙에는 외적의 적멸이나 기우 등 나라의 큰 불행이 닥쳤을 때 神僧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 이 불화가 제작될 무렵은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난의 시기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잘 부합한다.

이 나한도의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방형의 畫題欄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第七 迦理迦尊者”라고 세로로 썼고, 화제란 바로 옆에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墨書하였는데, 이는 고려 나한도에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먹 선과 朱線으로 이루어진 방형의 화기란을 두어 발원내용, 제작시기, 제작의 주관자 등을 기록하였으나 하단 부분은 잘려나갔다. 비록 화기의 하단부분이 잘려 나갔지만, 현존하는 나한도 화기와 비교검토를 통해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丙申年(1236년)에 隊正 金義仁의 주관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나한도는 의좌에 앉은 의좌상으로 암석과 수목 등 자연 산수를 배경으로 하는 오백나한도 도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현재화기	추정화기
第七迦理迦尊者」	第七迦理迦尊者
國土□□」	國土太平
聖壽□□」	聖壽天長
太子□□」	太子千載
令壽□□」	令壽萬年
之願□」	之願□」
下□□」	下□□」
景□□」	景□□」
丙申□」	丙申□」
棟樑□□	棟樑隊正
金□□」	金義仁」

이 나한도는 존자 중심의 구도와 수묵위주의 채색을 보여준다. 주인공인 존자는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의좌에 앉은 모습인데, 화면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하여 주인공을 크게 중시하였다. 존자는 둥근 두광을 갖추고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각진 의좌에 앉았다. 가사 장삼을 걸쳤으며 오른손으로 가슴부근에서 가사자락을 움켜쥐었다. 측면으로 놓인 두 발은 방형의 足座臺 위에 가지런히 올려 두었고, 은은하게 먹 바림을 한 뽕족한 코의 비단신을 신었다. 의좌의 우측 편에는 존자를 향해 고개를 돌려 합장한 청년의 侍者를 묘사하였는데, 시자는 존자에 비해 작고 부차적인 모습으로 배치하여 尊格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시자는 존자보다 야위고 날렵한 청년의 모습이다. 의자는 자를 대고 그은 듯 딱딱하게 각 져 있으나, 등받이는 둥글게 처리하고 붉은색 비단으로 드리워 부드러움을 부가하였다. 팔걸이와 등받이 끝에는 연화머리초처럼 곱팡이 위에 연꽃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존자는 좌안칠분면의 전신상이며, 머리는 대체로 편평하나 정수리가 약간 솟아 있고 울퉁불퉁한 뒤통수는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삭발한 머리는 열은 먹으로 바림질하여 파르스름한 수행승의 짧은 머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윤곽이 분명한 귀는 상·하각의 연결에 음영을 넣었고, 귓불에는 태환식 귀고리를 착용하였다. 이목구비는 호모범상형의 異僧의 모습인데, 호방하게 붓질한 눈썹, 푹 붙겨진 부리부리한 눈매, 높고 우뚝한 매부리 형태의 콧날, 붉게 칠한 작고 도톰한 입술, 턱선을 2~3중으로 표현하여 異國僧의 중후함을 드러내었다.

필선에서 얼굴 등 肉身의 윤곽선과 주름의 세부는 가는 선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과 신체의 윤곽선은 이보다 굵은 선을 사용하여 역양의 변화를 주었다. 가사의 옷깃, 광배의 외연, 의자, 족좌 등에는 잔잔한 먹 바림을 하여 잔잔한 입체감을 주었고, 의자의 등걸이와 입술 등 극히 일부분에는 붉은 색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이 나한도에서 보이는 구도, 인물표현의 기법, 필선, 색채 등의 양식적 특징은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그려진 나한도들과 유사함을 보인다.

<참고문헌>

- 柳麻理, 「高麗時代 五百羅漢圖의 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黃壽永 編), 民族社, 1987
 정우택, 「나투신 隱者의 모습 - 나한도」, 『구도와 깨달음의 聖者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고려시대 오백나한도 및 16나한도 현황

NO	작품명	제작 시기	크기(cm) 세로×가로	재질	소장처	화기	비고
1	第23 天聖尊者	1235년	59.7×41.5	견본담채	동경국립박물관	國土大□ 聖壽(天長) 令壽萬(年) 之願 有輝 □□ 正羅□□ 乙未 十(月日) 棟樑 金義	오백
2	第31 王相尊者	1235~6 년경		견본담채	한국 개인		"
3	第92 守大藏尊者	1235년	58.0×41.0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 聖 令壽 之願 司 宰 徹 乙未 棟樑 金	"
4	第112 掌法盖尊者	1235~6 년경	54.9×34.7	견본담채	일본 개인		"
5	第125 展寶藏尊者	1235년	55.2×38.8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國□聖 太子 令壽 之 願 將軍 垡下 高王 (土)乙未 棟 金	"
6	第145 喜見尊者	1236년	59.5×42.0	견본담채	일본 개인	國土 聖壽 太子 之願 君卿 將全 丙申 棟樑 金義	"
7	第170 慧軍高尊者	1236년	54.0×37.2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太平) 聖壽□□ 太 子□□ 令壽(萬年) 之願 校尉 丙申 東梁 金	"
8	第234 上音手尊者	1235년	55.1×38.1	견본담채	일본 大和文華館	國土太平 聖壽天長 令壽萬年之願洪茂下 隊 李? 乙未七月日 棟樑隊(正) 金義仁	"
9	第282 寶手尊者	1236년	54.6×31.7	견본담채	한국 개인	國土大 聖壽天(長) 令 壽萬歲 之願 散員徐 彦妻 丙申四月(日) 棟 樑隊 金義仁	"
10	第357 義通尊者	1235~6 년경	52.8×36.8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

NO	작품명	제작 시기	크기(cm) 세로×가로	재질	소장처	화기	비고
11	第379 圓上周尊者	1235년	59.0×41.3	견본담채	한국 개인	伏惟 隣兵速滅 中外 咸□ 聖壽等□ 令壽 齊北 己身延壽□ 室 內得椿齡 之願都兵馬 錄事李奕瞻 乙未十月 日棟梁隊正金義仁	"
12	第413 傳聖住尊者	1235~6 년경	53.3×36.7	견본담채	일본 개인		"
13	第427 願圓滿尊者	1236년	58.6×40.7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太□ 聖壽天(長) 太子千(午) 令壽萬(年) 之願金□ 智□ 丙申 七月日 棟梁隊(正) 金 義仁	"
14	第464 世供養尊者	1235~6 년경	52.8×40.8	견본담채	미국 Cleveland Museum	國土(太平) 聖壽(天長) 令壽 願□□ 鄭□□ 棟梁□□ 金	"
15	第7 迦理迦尊者	1236년	60.5×41.6	견본담채	한국 개인		십육
16	第15 阿代多尊者	13세기	53.8×39.7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

*화기는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71 재인용.

□ 관계전문가

1. 현상

비단바탕에 수묵담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迦理迦尊者和 侍者를 표현한 족자형태의 나한도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열화에 의한 바탕천의 박락과 함께 가필 흔적이 부분적으로 엿보임.

2. 특징

팔걸이의자에 오른쪽을 향하여 앉아 있는 左顔七分面の 나한상은 석가모니불의 일곱 번째 제자인 迦理迦尊者로, 둥근 머리광배를 갖추었으며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소맷자락 안에 모으고 두 발은 나란히 족대 위에 올려놓았다.

구부정한 어깨에 고개를 약간 숙여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은 일정한 굽기의 선(鐵線)으로 각지지 않고 둥글게 나타낸 원만형으로, 덕망 높고 자비심 충만한 노비구의 모습을 보는 듯 이목구비가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얼굴 크기와 알맞게 그려진 귀에는 둥근 고리 모양의 귀걸이를 착용하였으며, 목에는 三道 표현이 뚜렷하다.

화면 전반에 걸쳐 배어나는 붉은 갈색 톤과 붉은 기운이 감도는 색채로 안온한 느낌이며, 대의 깃과 이음새의 담묵처리와도 어우러져 격조가 있어 보인다.

존상과 의자, 배경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거의 동일한 색조로 말미암아 단조로워지기 쉬운 화면에 의자 등받이를 붉은색으로 처리하여 활기가 느껴진다.

나한이 앉아 있는 의자 밖 오른쪽에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는 시자는 얼굴은 존자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몸은 존자상과 같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가필을 하여서인지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이 다소 어색하고 초점 없는 무심한 시선처리로 자애로우면서도 긴장감 있는 존자상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한편 평면의 화면에 먹의 농담으로 입체감을 살려내고 있으며 머리와 머리광배, 족대와 신발, 대의 깃과 이음새 등에도 바림기법을 구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 가장자리 쪽에 ‘第七 迦理迦尊者’라는 존자명이 있는 이 나한도는, 일부가 잘려 완전한 판독은 어려우나 하단 중앙부에 화기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現在畫記]		[推定畫記]
國土□□		國土太平
聖壽□□		聖壽天長
太子□□		太子□□
令壽□□		令壽萬年
之願	→	之願
下□□□		下□□□
景□□□		景□□□
丙申□□		丙申□月
棟梁□□		棟梁隊正
金□□		金義仁

화기의 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조성연대가 을미년-병신년 (1235-1236년)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한도(제15 阿代多尊者, 제92 守大藏尊者, 제125 展寶藏尊者, 제170 慧軍高尊者, 제329 圓上周尊者, 제357 義通尊者, 제427 願圓滿尊者,)들과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제23 天聖尊者圖로 미루어 보아, 이 나한도 역시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나한도의 경우 위의 자료들에 비해 존상과 시자의 인물표현 및 의자 묘사에 있어 생동감이 덜함은 물론 솜씨가 다소 뒤떨어져 어색하다는데 1236년 조성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 만큼,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일시기인 1235년 작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천성존자도’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236년 작 ‘혜군고존자’와 제15 ‘아대다존자도’ 등과 비교해 보면 생동감 넘치는 존상의 표현력에서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2.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서울 興天寺 金銅千手觀音菩薩坐像)

가. 검토사항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3. 7. 2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기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서울 興天寺 金銅千手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동)
- 수 량 : 1구
- 규 격 : 상높이 71.5cm 무릎폭 43.2cm
- 재 질 : 금동
- 제작연대 : 고려~조선 초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내용

1) 명문 및 특기사항

※기록자료

삼각산흥천사42수관세음보살불량시주 현판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1894년, 나무, 24×31.7, 1점, 극락보전

銘文：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文百兩」未壹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文百兩」辛卯三月日」化主釋暎曇」大房重修時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百兩」米①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百兩」米一石」乙酉四月日化主釋暎曇」冥府殿重建時大施主」醞醬與饌著等物亦」獻納」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文一千兩」米二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文一千兩」甲午二月十八日始役五月十五日終役化主暎曇」

42수관음상개금시주 현판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

조선말~근대, 나무, 42×26, 1점, 수장고

銘文：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信士壬申生趙龍鎬」信女辛巳生崔喆珠」長子己亥生趙益求」次子甲辰生趙孝鎭」化主金曉星」庚戌年十月十五日」

2) 조사내용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興天寺 극락보전에는 42개의 팔을 지닌 천수 관음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상은 우리나라에는 남아있는 예가 매우 드문 금동으로 제작된 천수관음상으로, 각 손에 자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물은 유실되어 몇 개만 남아있다.

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몸에 천의를 걸쳤으며, 상체에 비해 무릎의 높이가 낮고 허리 부분이 긴 신체비례를 보인다.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른 상체에 비해 배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표현되었다. 얇은 천의는 신체에 밀착해 있으며, 목에는 영락장식과 함께 전신에 걸쳐 장신구가 확인된다. 장신구는 긴 줄 형태로 전신에 드리워졌는데, 중간에 부분적으로 타원 형태의 장식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상호는 방형에 가까운데, 양쪽 광대뼈 부분에 양감이 드러난다. 원형의 백호와 함께 눈썹 윗부분에서 깊게 파인 선으로 연결된 코는 윗부분이 평평한 모습이고, 입술은 상호에 비해 작은 편으로 인중 부분이 강조되었다. 턱 아래쪽으로는 한 줄 음각선을 넣어 양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계는 높은 편이다.

이 상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각 내부에 남아있는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의 두 현판기록을 통해 적어도 19세기에는 이미 흥천사에서 봉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판 기록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미술사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1929)에서도 흑백사진을 통해 흥천사 천수

관음보살좌상의 존재가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리원판(1937년) 자료에서도 극락보전에 봉안된 천수관음보살좌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천수관음보살상으로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상이 몇 구 남아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천수관음상과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 소장의 금동천수관음상이 현존하는 예이다. 이외에도 1322년에 작성된 천수관음주성원문이 남아있으며, 1343년에 장안사 선실에 천수천안관음을 안치했다는 기록이 「금강산장안사중흥비」에도 전한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현존하는 천수관음보살상의 희귀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894년명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현판에 기록을 통하여 볼 때, 尙宮 洪敬心華와 상궁 李慈仁華의 시주에 의해 조선시대 19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판의 기록을 통하여 보살상은 “사십이수관세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보살상에는 42개의 손이 있는데, 이들은 따로 주조하여 연결하였다. 결손되어 나무로 대체된 일부 손과 후대에 보완된 것으로 보이는 持物을 제외하곤 비교적 완전한 모습이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沙土를 이용한 전통적인 주조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보살상 내부에는 아직도 모래가 두껍게 붙어 남아 있다. 보살상은 전체적인 비례와 얼굴 표정, 화려한 장엄 등을 통하여 볼 때, 상당히 수준높은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42수를 가진 관음보살상으로서, 조선시대 19세기 작품답게 여러 시대의 양식적인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즉, 목과 상반신에 보이는 고려시대 초기의 특징, 지물로 들고 있는 金剛鈴과 2층 전각에 나타난 고려시대 중기의 특징, 몸 전체를 감싼 영락장식에 보이는 고려말 조선초의 특징, 보계 형식에 보이는 조선시대 전기의 특징, 그리고 보관에 보이는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 갈고리 매듭과 같은 영락 장식과 복부와 양다리 사이로 흘러 내린 띠 자락은 기존의 보살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징들이다.

홍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일부 손상되어 후보되긴 하였지만, 42수 관음보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1894년명 현판에 기록된 보살상의 조성 시기 “辛卯”년이 1831년인지 1891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살상이 조선시대 19세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복장 발원문이 아닌 현판에 조성발원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상기한 두 명의 발원자가 각각 100량씩 돈을 내어 조성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19세기에 유행하던 발원자의 이름 표기법 등을 참고해 볼 때 불상도 대략 이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살상 안쪽 표면에 남아 있는 청동 녹들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의 보살상에 보이는 것과 달리, 그다지 부식되지 않아 보살상의 조성 시기가 현판에 기록된 19세기일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하겠다.

홍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비록 조성시기가 조선시대 19세기이긴 하지만,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동반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42수 관음보살상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을 이와 관련되는 현판과 더불어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현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천수관음보살상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상은 다소 추상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기 드문 예로서 천수관음 도상 및 신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인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지물이 남아 있어 어느 시점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보이는 거친 주물 상태나 인위적으로 긁어낸 흔적 등은 지정에 앞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보 류 : 제조사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우리나라에서 천수관음에 대한 신앙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성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분황사 ‘左殿’의 북쪽벽에 그려져 있던 千手大悲[천수관음]가 영험하여 어린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가 『三國遺事』(권3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에 전하고 있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도록 천수관음에 대한 신앙이 이어져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고려후기에 천수관음상 조성에 관한 여러 기록이 전해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천수관음상은 회화 한 점뿐이며(삼성리움미술관 소장), 조각으로는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작품으로는 흥천사 천수관음상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천수관음보살상, 파리 기메동양미술관 소장의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의 3점이 전한다.

흥천사의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뒷면의 등판 좌우에 팔을 이어붙인 부분이 거칠고 부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팔의 길이와 굵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길게 조각된 손의 형태에서도 사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기에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보통 천수관음상은 많은 팔 때문에 몸체와 팔들을 따로 제작하여 조립하기도 하는데, 흥천사 천수관음상은 가는 몸통에 달린 팔들의 무게 때문에 일부가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갔던 듯하다.

그렇지만 보살상 자체는 뛰어난 요소를 보인다. 細長한 신체 위에 표현된 정교한 영락장식, 화려한 문양이 투각된 원통형의 보관, 보발의 가닥이 섬세하게 새겨진 보계, 세속적이면서도 신령스러운 얼굴, 착의형식 등에서 판단할 때, 고려 중·후기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조선전기의 조각으로 생각된다. 다만, 흥천사 천수관음상의 내부에 남아있는 회색의 조형토와 거친 주조 상태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다른 금동상의 상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불교조각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전기에는 금동상들이 비교적 많이 제작되어 서울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은해사 운부암 금동관음보살좌상, 남양주 수종사 석탑출토 금동불감과 여래좌상 등 비교적 여러 작품이 전하고 있는 반면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부터는 목조와 소조, 석조(경주불석)의 상들이 불교조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금동상의 주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흥천사는 1396년 신덕왕후의 추복을 위해 창건되어 연산군 10년(1504)에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현종 19년(1669)에 정릉이 중수되면서 인근 신흥사를 정릉의 원찰로 삼았으나, 이후 다시 정조 18년(1709)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었는데, 고종 2년(1865)에는 대원군의 후원으로 대대적으로 중창되었다. 이와 같은 흥천사의 변천에서 미루어 볼 때, 흥천사 천수관음상은 원래부터 흥천사에 봉안되었던 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필시 서울·경기 일대의 다른 사찰에 있던 상을 흥천사로 옮겨 봉안하여 개금과 보수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

재 전해오는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와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의 현판기록은 19세기에 이 천수관음상의 개금과 보수, 그에 따른 공양불사가 베풀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1) 명문 및 특기사항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1894년, 나무, 24×31.7, 1점, 극락보전
 <銘文>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文百兩」未壹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文百兩」辛卯三月日」化主釋暎曇」大房重修時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百兩」米①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百兩」米一石」乙酉四月日化主釋暎曇」冥府殿重建時大施主」醢醬與饌著等物亦」獻納」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文一千兩」米二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文一千兩」甲午二月十八日始役五月十五日終役化主暎曇」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 조선말~근대, 나무, 42×26, 1점, 수장고

<銘文>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信士壬申生趙龍鎬」信女辛巳生崔喆珠」長子己亥生趙益求」次子甲辰生趙孝鎭」化主金曉星」庚戌年十月十五日」

2) 조사내용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흥천사 극락보전에는 42개의 팔을 지닌 천수관음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상은 우리나라에는 남아있는 예가 매우 드문 금동으로 제작된 천수관음상으로, 각 손에 자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물은 유실되어 몇 개만 남아있다.

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몸에 천의를 걸쳤으며, 상체에 비해 무릎의 높이가 낮고 허리 부분이 긴 신체비례를 보인다.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른 상체에 비해 배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표현되었다. 얇은 천의는 신체에 밀착해 있으며, 목에는 영락장식과 함께 전신에 걸쳐 장신구가 확인된다. 장신구는 긴 줄 형태로 전신에 드리워졌는데, 중간에 부분적으로 타원 형태의 장식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상호는 방형에 가까운데, 양쪽 광대뼈 부분에 양감이 드러난다. 원형의 백호와 함께 눈썹 윗부분에서 깊게 파인 선으로 연결된 코는 윗부분이 평평한 모습이고, 입술은 상호에 비해 작은 편으로 인중 부분이 강조되었다. 턱 아래쪽으로는 한 줄 음각선을 넣어 양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계는 높은 편이다.

이 상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각 내부에 남아있는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四十二手觀音像

『改金施主』의 두 현판기록을 통해 적어도 19세기에는 이미 홍천사에서 봉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판 기록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미술사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1929)에서도 흑백사진을 통해 홍천사 천수관음보살좌상의 존재가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리원판(1937년) 자료에서도 극락보전에 봉안된 천수관음보살좌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천수관음보살상으로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상이 몇 구 남아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천수관음상과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 소장의 금동천수관음상이 현존하는 예이다. 이외에도 1322년에 작성된 천수관음주성원문이 남아있으며, 1343년에 장안사 선실에 천수천안관음을 안치했다는 기록이 「금강산장안사중흥비」에도 전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홍천사는 1396년에 태조가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사찰이다. 이후 태종은 1409년 정릉을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장하고, 석축들은 명나라 사신들의 숙소인 태평관과 청계천 광평교 보수에 사용하였다. 연산군 10년(1504)에는 태조의 명에 의해 건립한 사리각을 제외한 모든 당우가 불에 탔으며, 중종 5년(1515년)에는 유생들에 의해 사리각까지 완전히 소실되었다. 현종 19년(1699)에는 송시열(宋時烈, 607~1689)의 건의로 정릉을 중수하고 인근에 있는 신흥암을 신흥사로 바꿔 정릉의 원찰로 삼았으며, 정조 18년(1794년)에 비로소 현재의 자리로 사찰을 이관하였다. 고종 2년(1865)에는 대원군의 지원으로 크게 중창하여 다시 寺名을 興天寺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홍천사는 창건 이래 관음신앙과 관련 깊은 도량이었다. 태조의 명에 의해 건립한 사리각에도 관음과 지장보살상을 봉안하였고, 세종 23년(1441)과 32년(1450)에는 도승지 이사철에게 명하여 관음정근을 베풀었다고 한다. 1943년에 발간된 「봉은사본말사지」 홍천사조에 “홍천사는 중간에 신앙상으로 관음도량으로 일컬은 적도 있으나, 본래는 선종도량이다”라고 기록하여 홍천사가 관음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금동천수관음상이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부합하는 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전통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홍천사의 주불전인 극락전에는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극락전은 철종4(1853)년에 건립한 것인데, 현재 봉안된 삼존상은 각기 다른 양식적 특징과 시기성을 가지고 있어 모두 다른 곳에서 移安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아미타불상의 좌측에 봉안되어 있고, 천수관음보살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1894년에 작성된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音菩薩佛糧施主」 현판이다. 이때 尙宮 洪敬心華는 錢文百兩과 米壹石

을, 尙宮 李慈仁華는 錢文百兩을 佛糧施主하였다. 이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 불량시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불량시주는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을 말하는 것으로 불상 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같은 현판에 불량시주 다음에 기록된 대방과 명부전의 경우 중수와 중건 등 불사 목적을 분명히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京畿右道楊洲牧地三角山興天寺寮舍重勅記文」과 「漢陽東三角山新興寺極樂寶殿重建丹青施主」 현판에는 1867년에 법당 삼존불상을 개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주법당 건립 후 얼마 있지 않아 삼존불상에 대해서도 개금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3년 1월 24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흥천사 귀중품 중 하나로 철제도금 관음보살상이 고시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철제도금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에 관음보살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천수관음신앙은 통일신라 초에 관련경전이 수용된 이후 천수관음 신앙이 널리 성행하였고, 이에 따른 천수관음상의 조성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널리 유행했던 천수관음 신앙에 비해 현존하는 천수관음상은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에서의 천수관음 신앙은 천수관음상 자체보다 천수다라니 자체를 신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각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금동 11면천수관음보살상, 파리 국립기메동양미술관 금동천수관음보살상, 그리고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상 정도가 알려져 있고, 그림으로는 호암미술관에 1폭이 전한다. 천수관음상은 보통 11면 40비 또는 11면 42비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면 42비로 표현된 경우도 많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1면 42비로 제작되었고, 서울 흥천사와 프랑스 기메박물관의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면 42비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천수관음상의 소의경전은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智通 譯),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唐 蘇縛羅釋),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菩提流志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不空 譯), 『金剛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不空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伽梵達摩 譯)등이다.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唐 蘇縛羅釋)에는 천수관음상의 특징과 지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불상이나 불화로 표현될 때는 지물의 위치나 순서 등이 경전의 내용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흥천사 관음보살상은 금속관을 투각한 보관을 쓰고 있고, 보관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고 수직에 가깝다. 머리와 닿는 보관의 둥근 테두리에는 聯珠文을 돌렸다. 보관의 정면과 뒷면에는 꽃잎모양의 장식판을 세우고, 그 둘레에는 줄기가 굵은 당초문과 활짝 핀 연꽃 무늬를 투각하였다. 꽃잎모양의 입식 장식판 안에는 半葉의 화문을 두었고 그 안에 다시 3개의 圓文을 삼각형이 되도록 배열하여 三寶文을 이루도록 하였다. 꽃모양의 장식판 위에는 활짝 핀 연꽃을 다시 올리고, 그 위에 다시 鳥翼形 冠飾을 펼쳐 장엄하였다. 새날개

모양의 관식의 중앙과 좌우로 펼쳐진 날개의 윗면에는 둥근 구슬을 올려놓았다. 귀 뒤로는 짧게 드리운 관대가 표현되었다. 짧게 드리운 관대와 조익형 관식의 보관은 고려 후기에 제작된 수월관음도(日本 東光寺)나 제석천도(日本 光澤院), 그리고 고려 후기 사경변상도에 나타나는 보살상의 보관 장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조익형의 관식은 보수성이 짙은 불화에서는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조각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다가 근대기에 조성된 수덕사 정혜사 보살상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모티프는 동일한 것에서 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형태나 표현 방식에서 분명한 시대적 차이가 있다.

머리의 중앙에는 모양의 다섯 개의 능을 가진 보계가 솟아 있는데, 적절한 높이의 5능형 보계는 여말선초기에 보이는 보살상의 보계들과 비교된다. 보관 아래로는 세밀하게 빗질한 寶髮이 표현되었고, 구렛나루를 타고 내린 한 가닥의 머리카락은 귀를 가로질러 어깨 위로 드리워졌다. 보계는 보살상의 얼굴형은 가름하나 눈썹 끝의 경사가 급하면서 날카롭고 가늘게 뜬 눈매는 치켜 올렸으며 광대뼈를 드러내고 열린 미소를 의도하며 입 주변을 움푹 파내었으나, 오히려 의도와 달리 전체적인 인상은 추상적이다. 이러한 사실성에 기반하지 않은 추상적인 얼굴과 과장스러운 만큼 잘록한 허리, 연약한 팔 등은 보은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이나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좌상,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청동빈두루존자상, 고려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등 고려 전·중기 다양하게 등장하는 불상 양식의 한 계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살상에서 보이는 특징은 양 귀밑에서부터 U자형으로 길게 늘어진 끈 모양의 장식, 치마를 2번에 걸쳐 묶어 매듭지은 띠자락, 그리고 전신에 걸쳐 표현된 고리모양의 영락장식이다. 우선 양귀 밑에서부터 흘러내린 U자형의 띠 장식은 중국 中唐 시기에 그려진 돈황 제159굴 문수·보현도살도에서 같은 장식이 이미 확인되며, 이는 돈황 오대벽화에서로 이어져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성 관음굴 석조관음보살상을 비롯하여 무량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 등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매우 드물다. 그러나 고려 불화에서는 1294년작 일본 묘만지(妙滿寺) 미륵하생경변상도를 비롯하여 1350년작 신노인(親王院) 미륵하생경변상도의 협시보살상, 그리고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아미타삼존도 중 대세지보살상, 프랑스 기메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보살도 등 고려 후기에 제작된 불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조선 초기에 제작된 일본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 관음보살도에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한정된 시기 조각과 불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치마를 묶어 내린 띠를 다시 한 번 더 묶은 매듭은 논산 개태사지 석조보살입상, 감지금니 대보적경 변상도(1006年刊, 日本文化廳),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상의 협시상, 日本 야마구찌현(山口縣) 金銅菩薩立像,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입상,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발견 금동보살좌상 등 고려시대 작품에서 확인된다. 이외 가슴에 고리 모양의 영락장식은 일본 야마구찌현 金銅菩薩立像, 당진 영탑사 금동

비로자나불삼존좌상, 부여 무량사 금동보살좌상 등 고려시대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보살상에서 보이는 추상적인 얼굴과 잘록하게 허리, 꽃잎형의 입식과 조익형 관식으로 이루어진 보관, 머릿결을 표현한 多稜形의 보계, 고리모양의 영락장식과 U자형의 끈 장식, 2번에 걸쳐 묶은 치마 매듭 등은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제작된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상의 제작 시기도 이르면 고려 전기, 늦어도 조선 초기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편년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시기의 폭을 넓게 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천수관음보살상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상은 다소 추상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기 드문 예로서 천수관음 도상 및 신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인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지물이 남아 있어 어느 시점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보이는 거친 주물 상태나 인위적으로 긁어낸 흔적 등은 지정에 앞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宋殷碩, 「高麗 千手觀音圖 圖像에 對하여」,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4, 1999

김정희, 「한국의 千手觀音 信仰과 千手觀音도」, 『淨土學研究』 17, 한국정토학회, 2012

3. 서울 보타사 마애좌상(서울 普陀寺 磨崖坐像)

가. 검토사항

‘서울 보타사 마애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3. 7. 2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9호
- 명 칭 : 서울 보타사 마애좌상(서울 普陀寺 磨崖坐像)
- 소유자(관리자) : 보타사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60-46 (안암동5가)
- 수 량 : 1좌
- 규 격 : 전체높이 503.3cm 무릎폭 341.0cm
- 재 질 : 돌
- 제작연대 : 고려 말~조선 초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내용

1) 명문 및 특기사항

※기록자료

나무금강회상불보살 각석(南無金剛會上佛菩薩 刻石)

고려시대, 돌, 133×78, 1좌, 경내

銘文 : 南無金剛會上佛菩薩」 忉利會上聖賢衆」 擁護會上神祇華」

2) 조사내용

보타사 마애좌상은 개운사의 암자(칠성암)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화강암 암벽에 조각된 고려시대의 마애상이다. 상의 표면 전체에 걸쳐 호분이 칠해져 있고, 상의 좌우에는 직사각형으로 파인 흔적이 있어 이전에는 보호각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에, 신체는 양감이 강조되어 당당하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천의를 걸친 보살상으로,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아래쪽으로 내리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 미타인을 결하고 있다. 상호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으로 좌우로 길게 뻗은 눈, 초승달 모양의 눈썹, 높게 솟은 콧등이 특징적이다. 원형의 백호와 함께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다. 귀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게 표현되었고 양쪽 모두 원형의 귀걸이 장식을 하고 있다. 어깨 아래로 흘러내린 보발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보관은 높은 편으로 좌우로 관대가 돌출되고 관대에 결구된 보관장식이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으로, 이런 장식의 표현은 서울 옥천암 마애좌상에서도 확인된다. 두껍게 조각된 법의는 두 어깨를 모두 감싸고 무릎까지 부드럽게 내려와 있고, 무릎은 높은 편으로 둔중하고 발끝에는 노리개가 달려있다.

이 상과 관련한 기록은 현재 전하는 것이 없지만 마애좌상의 향우측에 願牌형식의 각석이 있어 주목된다. 이 각석의 양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다른 범종의 패 문양 및 마애각석과의 유사성을 제기한 견해가 있는데, 이를 통해 마애좌상의 조성시기 역시 고려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은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조선 초기 보살상 형식의 하나를 보여주는 예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적으로 우수하므로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보타사 마애좌상은 7자 형태의 암반에 부조로 새긴 보살상이다. 마애좌상은 존명과 조성 시기를 알려 줄만한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으나, 마애좌상과 관련되는 당시의 불교 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서 주목된다. 즉 마애좌상 원편에 새겨진 원패(願牌)에는 “南無 忉利會上聖賢衆 金剛會上佛菩薩 擁護會上神祇等”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는 공선(巨璇)이 조선시대 순조 26년

(1826)에 편찬한 불교의식집 『作法龜鑑』에 수록되어 있는 신중기도 중 神衆請의 내용[“南無金剛會上佛菩薩 南無忉利會上聖賢衆 南無擁護會上靈祇等衆”]과 관련된다.

원패의 형식이 조선시대 전기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보타사 마애좌상도 인근 지역에 있는 조선시대 15세기 경에 조성된 玉泉庵 마애좌상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로 편년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타사 마애좌상은 양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년명 불상의 예가 없기 때문에 도상적으로 영향을 미친 옥천암 마애좌상의 하한 연대인 조선시대 15세기 경이거나 그 이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타사 마애좌상은 도상적으로 옥천암 마애좌상의 영향을 받아 조성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다. 마애좌상에서는 모방작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들이 간취되는데,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평면적인 처리와 딱딱한 느낌, 지나치게 두껍게 느껴지는 다리부분, 법의 옷주름과 신체의 각 부위가 유기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점, 옷자락의 표현이 간략화되고 모호한 점 등이 그것이다.

비록 보타사 마애좌상은 모방작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의 창의력과 표현력은 찾아볼 수 없으나 원패의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조선시대 전기에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불교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보타사 마애좌상은 제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이 없어 신앙적 배경이나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양식상 여말선초에 조성된 불상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이 마애보살상은 옥천암 마애보살상과 거의 같은 도상·양식적 특징을 보이며, 여말선초기 한양도성 인근에 조성된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마애보살상으로, 여말선초기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미 지정된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보물 제1820호)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명칭 :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은 5미터가 넘는 대형의 마애상으로 사실적인 이목구비의 상호(相好), 평면적인 신체, 평평한 띠주름으로 이루어진 천의와 조백(條帛)이 표현되어 있다. 관대(冠帶) 좌우로 장식이 늘어진 통행(筒形)의 보관을 쓰고 목걸이와 팔찌를 찬 모습은 서울 옥천암 마애좌상과 동일하며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은혜사 운부암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같은 고려 말에서 조선초 사이에 조성된 보살상 형식과 유사하나 당시 유행하던 대의형태의 보살옷이 아닌 천의와 조백을 걸친 점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아마도 해남 대흥사 금동보살좌상이나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과 같은 유형의 조선초기 보살상 형식을 따른 상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옥천암 마애좌상에 비해 다소 단순해진 점이 발견되는데, 보관과 수식의 형태,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 옷과 옷주름의 표현이 소략해졌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호분이 칠해져 흰색을 띠고 있으나 원래는 화려한 채색과 금분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상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마애상 전면의 공간이 협소한데, 상의 좌우에 목조 가구를 꽃았을 방향의 홈이 파여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래는 마애상의 크기에 걸맞는 웅장한 규모의 보호각 내지는 불전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애좌상의 명칭은 보관의 화불이나 보병과 같은 지물(持物) 등이 표현되지 않아 관음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마애좌상의 향 우측에 패(牌) 형태의 공간에 새겨진 명문(왼쪽부터 「南無 切利會上聖賢衆」 金剛會上佛菩薩」 擁護會上神祇等(衆)」)을 바탕으로 도리천의 주신인 제석천[Indra, 天帝釋, 帝釋桓因]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명문의 내용은 神衆作法 가운데 제 39위의 하단작법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데, 39위의 신중 가운데 제석천과 범천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명문이 조성당시에 새겨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1) 명문 및 특기사항

南無金剛會上佛菩薩 刻石, 고려시대, 돌, 133×78, 1좌, 경내
<銘文> 南無金剛會上佛菩薩」 忉利會上聖賢衆」 擁護會上神祇華」

2) 조사내용

보타사 마애좌상은 개운사의 암자(칠성암)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화강암 암벽에 조각된 고려시대의 마애상이다. 상의 표면 전체에 걸쳐 호분이 칠해져 있고, 상의 좌우에는 직사각형으로 파인 흔적이 있어 이전에는 보호각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에, 신체는 양감이 강조되어 당당하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천의를 걸친 보살상으로,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아래쪽으로 내리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 미타인을 결하고 있다. 상호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으로 좌우로 길게 뻗은 눈, 초승달 모양의 눈썹, 높게 솟은 콧등이 특징적이다. 원형의 백호와 함께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다. 귀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게 표현되었고 양쪽 모두 원형의 귀걸이 장식을 하고 있다. 어깨 아래로 흘러내린 보발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보관은 높은 편으로 좌우로 관대가 돌출되고 관대에 결구된 보관 장식이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으로, 이런 장식의 표현은 서울 옥천암 마애좌상에서도 확인된다. 두껍게 조각된 법의는 두 어깨를 모두 감싸고 무릎까지 부드럽게 내려와 있고, 무릎은 높은 편으로 둔중하고 발끝에는 노리개가 달려있다.

이 상과 관련한 기록은 현재 전하는 것이 없지만 마애좌상의 향우측에 願牌형식의 각석이 있어 주목된다. 이 각석의 양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다른 범종의 패 문양 및 마애각석과의 유사성을 제기한 견해가 있는데, 이를 통해 마애좌상의 조성시기 역시 고려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보타사 대웅전 뒤쪽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에는 높이 약 5m의 보살상이 새겨져 있다. 바위는 앞쪽으로 ‘ㄱ’자 모양으로 돌출해 자연스럽게 지붕을 이루고 있고, 머리의 좌우 측면에는 직사각형의 홈이 파 원래는 보호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마애보살상은 바위의 곡면을 따라 그에 상응하게 자연스럽게 새겨,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우리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보살상의 불신에는 백의관음을 연상시키듯 하얗게 호분을 발랐고, 어깨 위로는 검은 보발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머리에는 삼면 절첩형의 보관을 썼고, 보관의 좌우에는 뿔 모양의 관대가 수평으로 뻗어 있다. 관대의 아래에는 타원형의 영락장식이 무겁게 달려 있는데, 전반적인 표현 양상은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거의 같다.

얼굴은 가름하며, 이마는 좁고 양미간에는 동그란 백호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활처럼

휘어진 눈썹 아래로는 눈꼬리를 약간 올려 사바세계를 향한 긴 눈을 표현하였으며, 콧방울에 힘이 들어간 코는 약간 매부리코로 실재감이 있다. 인중은 뚜렷하고 작은 입술은 살며시 다물어 열린 미소를 풍기고 있다. 넓은 얼굴에 비해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적 요소로 생각된다.

이목구비를 단정하게 표현하였는데, 좁고 길게 늘어진 귀에는 둥근 귀걸이를 착용하였다. 목에는 삼도를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팔에는 둥근 無紋의 팔찌를, 목에는 물결무늬를 새겨 넣은 띠 모양의 목걸이를 부착하였다.

신체는 암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새겼으며 불신에는 천의를 걸쳤다. 양 어깨를 덮은 천의는 불신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가슴에 비스듬히 걸친 조백(條帛)은 왼쪽 가슴 부근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十’자형으로 멋스럽게 교차시켰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엄지와 검지를, 왼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 오른손과 달리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나 다소 어색하게 표현되었다. 길상좌를 취한 큼직한 두 발은 노출되었으며, 발목 주변으로만 사선주름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 놓았다. 주름 선은 강약의 변화가 거의 일정하며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

이 마애보살좌상은 삼면 절첩식 보관과 뿔 모양의 관대, 타원형의 보관장식, 천의식 착의법 등은 인근에 있는 옥천암 보도각 마애보살좌상과 거의 같은 형식·양식적 특징을 보여주지만, 세부의 표현에서 다소 소략하고 도식화되었다. 이는 보타사 마애보살상은 옥천암 마애보살상을 토대로 이와 유사한 시기 또는 약간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 마애보살상의 좌측면에는 新舊의 시주자명 암각과 함께 牌 모양의 명문이 남아 있다. 牌形의 암각 명문은 마애보살상의 도상 및 조성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된 바 있다.

	南	
	無	
擁	金	切
護	剛	利
會	會	會
上	上	上
神	佛	聖
祇	菩	賢
等	薩	衆

이 글은 신중작법 가운데 39位의 하단 작법 탄백의 내용과 유사하여 제석천과 관련된 도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 각석이 마애보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옥천암-옥천암의 역사와 문화』, (사)한국미술사연구소·옥천암, 2009

4.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

가. 검토사항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2.11.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1.24)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기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01.6.27)
- 명 칭 :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소유자(관리자) : 비래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골길 47-74 (비래동)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83.0cm, 무릎폭 59.0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650년(효종 1)
- 제작자 : 無染, 性修, 德明, 天游, 敬聖, 雪巖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비래사 비로자나불좌상은 조형적으로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묵서명을

통해 조선후기 17세기 중엽 불교조각계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만든 무염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조선 후기에 그의 영향을 받은 조각승만 100여명에 이르러 ‘무염파’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 그 범위도 넓어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경기도 일대까지 포함한다. 그의 작품은 특히 17세기 불교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작품은 165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그가 수조각승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훨씬 이전부터인데, 현재 남겨진 작품만을 두고 볼 때 1635년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목조삼존상이 가장 이른 예이다.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1650년대에 들어서면 거의 해를 거르지 않고 수조각승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무염은 마지막으로 1656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목조삼세불좌상을 수조각승으로 조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1653년, 1655년에 그의 제자인 海心과 道祐에게 수조각승의 자리를 물려주기 시작하였다. 대전 비래사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그가 제자들에게 수조각승의 자리를 내어주기 전인 1650년의 작품이다.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성 당시 함께 일한 5명의 조각승 중 性修, 德明, 敬聖은 2회 이상 무염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특히 덕명은 이듬해 속초 신흥사 극락전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무염과 함께 조성하기도 하였다.

대전 비래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바닥면에 묵서명이 있어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알려 주지만, 아쉽게도 원 봉안처에 관해서는 적고 있지 않다. 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7세기 가장 영향력있는 조각승이었던 무염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상이다. 그가 가장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일 뿐 아니라 그가 만든 불상의 특징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전 비래사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정확한 제작 시기와 작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무염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 의미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밑면 묵서를 통하여 1651년(효종 2)이라는 정확한 제작 시기와 無染이라는 조성 작가를 밝히고 있어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특히 주먹 권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듯 표현한 지권인은 이 시기 비로자나불상의 도

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 균형이 잡혀 안정적이며, 신체의 연결과 옷 주름의 흐름이 조화롭고 세부의 표현도 섬세하고 우아하여 자비로운 부처의 상호가 잘 표현되었다. 따라서 이 상은 17세기 전·중반기 크게 활약한 조각승 무염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사진 1.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비래사 대적광전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1)이다. 비로자나불상의 현상을 살펴보면, 높이가 83cm로 등신대(等身大)보다 다소 작은 크기의 불상으로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다. 전체 크기에 비해 머리가 약간 크고 어깨가 좁은 신체비례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준다. 육계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머리에는 나발이 촘촘하고 머리 정상에 정상계주와 중간부분에 반달모양의 중계주가 표현되어있다.

방형에 가까운 얼굴은 이마가 넓고 뺨은 통통하며 눈은 반개하였다. 콧날은 오뚝하고 인중이 선명하며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착의형식으로 표현된 대의(大衣)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를 지나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면서 가슴에 넓은 U자형의 곡선을 이루어 드러난 내의(內衣)는 수평을 이룬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서 오른손 검지위에 왼손의 검지를 올린 지권인(智拳印)을 결했다(사진 2).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려 향마좌의 좌세로 앉은 다리 위에는 옷주름이 복잡하게 새겨져있

른쪽 어깨에서 팔꿈치를 지나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면서 가슴에 넓은 U자형의 곡선을 이루어 드러난 내의(內衣)는 수평을 이룬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서 오른손 검지위에 왼손의 검지를 올린 지권인(智拳印)을 결했다(사진 2).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려 향마좌의 좌세로 앉은 다리 위에는 옷주름이 복잡하게 새겨져있

고 오른발 끝은 치마[裙] 자락에 덮혀 있다.



사진 2.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 좌상의 수인(智拳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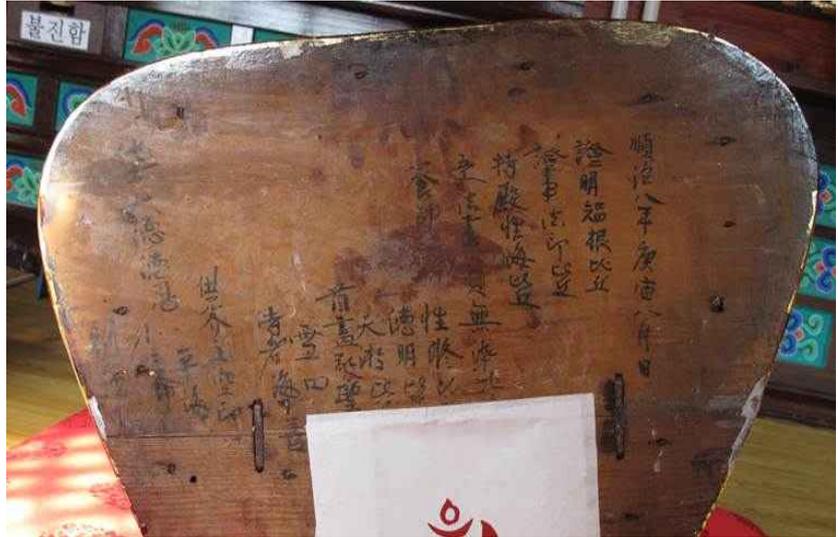


사진 3. 비래사 비로자나불좌상 바닥의 묵서명

○ 내용 및 특징

비로자나불상은 전라북도 대둔산의 안심사에 봉안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비래사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복장발원문이 전하지 않으나 불상 바닥에 있는 아래의 묵서명(사진 3)을 통해서 조성시기와 조각승을 알 수 있다.

順治八年庚寅八月日
 證明智根比丘
 證師法印比丘
 持殿性海比丘
 受法畫員無染比丘
 養師 性修比丘
 德明比丘
 天游比丘
 首畫 敬聖
 雪嚴
 侍者 海喜
 供養主 空印
 化士大德 德忍 平海

小三命
別座 弘澹

이 목서에 쓰여진 순치 8년은 1651년이나 이 해는 辛卯年이므로 목서명에 기록된 '庚寅'이라는 간지에 따라 1650년(순치 7)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작에는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았고 성수, 천명, 천유, 경성, 설엄의 다섯 승려가 함께 참여하였다. 무염의 작품으로는 선운사 대웅보전 삼신삼세불좌상(1633년)을 비롯해서 영광 불갑사 대웅전 삼세불좌상(1635년),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좌상(1651년)과 지장보살좌상, 불갑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1654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상과 십육나한상(1656년, 발원문傳)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사진 4. 불갑사 대웅전 석가모니불좌상전, 조선 1635년



사진 5.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불좌상, 1651년

무염의 작품 가운데 비래사 비로자나불상은 불갑사 석가여래좌상(사진 4)에서 보이는 밝고 생기에 넘치는 상호와 당당한 佛身의 표현, 또는 신흥사 아미타여래좌상(사진 5)에서 보이는 양감이 풍부한 상호 표현과는 달리, 부드럽고 온화한 상호에서 나타나는 차분한 분위기와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주고 있어 무염이 제작한 불상들 중에서도 조각적으로 뛰어나다.

비래사 비로자나불상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들 가운데 차조각승 성수는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고창 선운사 목조삼신불좌상(1633년)와 영광 불갑사 목조삼세불좌상(1635년)의 제작에서 道祐와 勝一에 이어 제 4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했던 것

을 알 수 있는데, 도우와 승일이 빠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 제작에서 차조각승이 되었고 ‘養師’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서 조각승들 가운데 비교적 연배가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 3위 조각승인 덕명은 무염의 보조 조각승으로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지장보살좌상(1651년)의 제작에 참여했고, 제 4위 조각승인 천유와 제 6위 조각승 설엄은 비래사 비로자나불상 외에는 밝혀진 활동기록이 없다. 제 5위 조각승인 경성은 비래사상과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1652년) 제작에 수화승 무염의 보조 조각승(제 5위)으로 참여하였고, 이 밖에도 海心, 自修 등의 보조 조각승으로 17세기 후반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문명대, 「조각승 무염, 도우와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1, 2006.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教彫塑 -』, 양사재, 2007.
 김창균, 「飛來寺 大寂光殿 奉安 木造 毘盧遮那佛坐像에 대한 考察」, 『비래사문물의 전 통적 재조명 - 불교문화학술회의-』, 한국불교문화학회·중앙인문연구원, 2011.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대전시 비래사 대적광전에는 단독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바닥면에는 ‘順治八年庚寅八月日 證明智根比丘 證師法印比丘 持殿性海比丘 受法畫員無染比丘 養師 性修比丘 德明比丘 天游比丘 首畫敬聖 雪巖 侍者海喜 供養主空印 化士大德德印 平海 小三命 別座弘△’라고 적은 목서가 있어 언제, 누가 이 불좌상을 조성하였는지 알려준다.

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2001년 6월 27일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좌우 협시 없이 단독으로 봉안되어 있다. 머리에는 반구형의 정상 계주와 반달 모양의 중심 계주가 있으며, 육계는 낮아 머리와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꼭 다문 입과 양 미간 사이에서 과장되게 돌출된 큰 코는 17세기 중엽 무염 조각의 특징 중 하나이다. 양 손은 가슴까지 올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왼손 검지를 올려 오른손 검지로 누르고 있는 권인(拳印)을 하고 있다. 가사는 왼쪽 어깨를 덮은 변형된 편단우견 형식인데, 왼쪽 어깨를 덮은 옷자락이 부드러운 선을 그리며 왼쪽 팔꿈치로 넘겨져 있다. 허리가 길고, 양 무릎의 폭은 상반신에 비해 좁고 빈약하다. 왼쪽 정강이 위의 나뭇잎 모양 가사 자락 역시 1651년 속초 신흥사 명부전의 목

조지장보살좌상, 1652년 완주 정수사 극락전의 목조아미타불조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염파 조각의 특징 중 하나이다.

○ 내용 및 특징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바닥면에 기록되어 있는 묵서명에 따르면 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650년 無染이 性修, 德明, 天游, 敬聖, 雪巖 등 5명의 조각승과 함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順治八年은 1651년이며, 庚寅은 1650년이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통상 간지를 기준으로 165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묵서명에는 이처럼 제작 시기와 조각승에 관해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애석하게도 원 봉안처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비래사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7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지만, 과장되게 돌출된 코와 다부지게 다문 입매라든지, 신체의 탄력있는 양감 표현, 오른쪽 어깨 위의 부드럽게 흘러내린 가사 자락, 그리고 결가부좌한 양 다리에 새겨진 옷주름, 왼쪽 무릎 부근의 잎사귀 모양 옷자락 등은 17세기의 다른 불상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17세기에 일가를 이룬 ‘무염파’ 조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래사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동일한 무염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1652년 완주 정수사(淨水寺) 극락전의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유사한데, 꼭 다문 입과 짧은 턱, 지나치게 돌출된 코, 신체 비례 역시 두 불상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 조사내용

비래사는 조선 중기 懷德宋氏 종친들이 고승 學祖에게 부탁하여 창건한 암자로 알려져 있는데, 법당에서 발견된 상량문에는 崇禎十七年 化主 學祖가 등장하고 있어 1644년경에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은 일찍이 宋時烈(1607~1689)을 비롯한 많은 유생들이 노닐면서 공부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송씨 문중들의 기도처로도 이용되었다.

이 불상은 1861년에 작성된 개금중수기에 따르면 원래 대둔산 安心寺 심검당에 봉안된 것이나, 언제 누구에 의해 현재의 장소로 이안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불상의 밑면에는 墨書로 기록된 조성기가 남아 있다. 조성기에는 順治 8년 庚寅(1650년) 8월에 知根스님을 증명으로 하여 無染, 德明, 天游, 敬聖, 雪巖 등이 함께 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순치 8년은 辛卯이고 順治 7년이 庚寅이므로, 干支에 따라 165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특히 조각승의 이름 위에 受法畫員, 養師, 首畫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무염이 제작한 불상에서 자주 사용되고 조각승 명칭이어서 주목된다.

수조각승 무염은 1624년 순천 송광사 광원암의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발원문에 화주로

처음 등장하고, 이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33년),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5년), 해남 도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48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1년) 및 목조지장보살삼존상(1651년),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1654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2년),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1656년)을 제작하는 등 17세기 전·중엽 경에 걸쳐 크게 활약한 조각승이다. 양사 성수는 수조각승 무염과 함께 1633년에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1635년에는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다. 1653년에는 수조각승 해심과 함께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조성하였다. 덕명은 무염을 도와 1651년에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지장보살삼존상을 제작하였다. 무염의 조각 유품은 해심이나, 도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상의 중수개금은 1861년에 世元, 善律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수를 담당한 世元은 19세기 중반에 활약한 불화승로 1832년 서울 수국사 감로도를 비롯하여 1844년 봉은사 신중도 제작에 참여하였고, 1856년에는 서울 도선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개금하는 등 불화뿐만 아니라 불상 개금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善律도 세원과 함께 작업을 같이 19세기 중반에 활약한 불화승이다.

본존 비로자나불은 최근에 지은 대적광전의 높은 수미단 위에 팔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한 머리에는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 반달형의 중앙계주를, 정상에는 구슬모양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아 넣었다. 둥글게 돌아간 큰 귓바퀴에는 갈고리 모양의 상·하각(上下脚)의 연결을 음각하였고, 귓불은 도톰하고 귓구멍은 역3자로 耳屏이 볼록하게 양감 있게 조각되었다. 부드럽게 솟은 눈썹 골 위로 푸른 눈썹 선을 가늘게 그려 넣었고, 행인형으로 도톰하게 부풀린 눈두덩에는 사바세계 중생을 굽어보듯 고요하게 잠겨 있는 눈매를 표현하였다. 활처럼 휘어진 눈썹에서 이어진 오탁한 코는 곧고 반듯하여 이상적이며, 다소곳이 다문 작은 입술에는 은은하게 범열의 미소를 표현하였다. 턱 선을 부드럽게 둥글린 얼굴은 두툼하게 자리한 군살 턱으로 인하여 후덕하고 중후한 모습이다. 이는 다소 길쭉한 형태의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1633년)이나 둥글둥글한 동안형의 영광 불갑사 삼불상 등 전반기 작품에 비해 한층 종교적 감성이 충만해 진 듯하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고, 관념적인 쇄골 선을 강조하였다. 착의는 편단우견으로 걸친 가사의 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힘차게 덮은 이른바 변형의 편단우견, 또는 양주식 우견편단법이다. 가슴에는 비스듬히 접은 군의를 탄력 있게 표현하였고, 그 아래로 볼록 나온 배의 윤곽이 잘 드러난다. 佛身에 걸친 佛衣는 두텁지 않아 신체와의 긴밀하게 밀착되어 신체의 윤곽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수인은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치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지권인을 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로자나불상의 수인은 명대 비로자나불에서 나타나는 수인으로, 무염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1633년에

조성된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불상을 비롯하여 1624년에서 1633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불상에서도 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거의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주름의 표현은 상체는 최대한 간결하게 여백을 강조하였고, 하체에는 율동적인 주름을 사용하여 밀도를 높여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즉 상체는 왼쪽 어깨에 표현된 몇 가닥의 주름과 감추듯 반전시킨 못 깃 주름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름들은 가감하게 생략했으며 주름의 깊이도 얕은 편이다. 반면 하체는 골이 깊이 생동감 넘치는 주름들로 구성하였다. 즉, 결가부좌한 허벅지 윗면에는 신축성 있는 세 가닥의 짧은 주름이 잡혀있고, 무릎 앞쪽으로는 발목을 감고 흘러내린 율동적으로 띠 주름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사선 주름과 끝을 둥글게 끝을 만 골 주름 등으로 변화를 주었다. 노출된 오른발은 왼쪽 팔목을 덮고 내린 소맷자락이 날렵한 나뭇잎 모양으로 맵시 있게 드리웠다. 무릎에 표현된 활달한 선묘는 17세기 전반의 단순 수평 3단의 층단 주름에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변모된 것이지만, 비슷한 시기의 다른 조각상에서는 훨씬 도식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 조성기(바닥밀면)

順治八年庚寅八月日」

證明 智根比丘」

證師 法印比丘」

持殿 性海比丘」

受法畫員 無染比丘」

養師 性修比丘」

德明比丘」

天游比丘」

首畫 敬聖」

雪巖」

侍者 海善」

供養主 空印」

化士大德 德忍 平海」

小三命」

別座 弘 □」

○ 개금기

咸豐十一年庚申四月二十九日改金重修奉安安心寺尋劍堂 證明 海雲堂 正巡 誦呪 華珍 畫師 月下堂 世元 善律 法仁 有□ 眞昊 頓碩 法信 應心 本寺秩 月荷堂 應奎 智潭堂 大覺 雲松堂 義學 別座 慧明 鍾□ 謙順 供養主 道彦 華欣 智善 守一 致仁 幻如 時持司 道祥

大小施主各各 保□ 所願成 就之大□ 今年月日後佛幀一軸神衆幀一軸新造而亦爲改金華莊庵
阿彌陀佛一位地藏菩薩二位也 化主 龍海堂圓

<참고문헌>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자료집, 문화재청·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참조.

5.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 종형묘지 (粉靑沙器象嵌‘正統4年銘’鐘形墓誌)

가. 검토사항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 종형묘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 종형묘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10.1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1.2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기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 종형묘지(粉靑沙器象嵌‘正統4年銘’鐘形墓誌)
- 소유자(관리자) : 안동김씨 문온공파 대종회(경기도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 수 량 : 1점
- 규 격 : 총 높이 34cm, 동체 폭 23.5cm, 저경 21.5~23cm, 접지면 폭 4.3~4.5cm
- 재 질 : 磁器
- 제작연대 : 조선 1439년경(세종 21)
- 수 량 : 1건 1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 지정 가치

출토지와 묘주가 정확하고, 1439~1440년 경이라는 제작시기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묘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제작지가 광주 일대의 가마임이 확실시된다. 그러므로 세종연간의 도자 연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편년유물이다. 아울러 세종연간의 관료였던 김명리라는 인물과 그 주변의 관료 문중간 교유관계를 비롯한 역사적 고증을 여러 각도에서 시도할 수 있는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역사성, 희소성 등에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 근거 기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인 분청사기 상감 정통14년명 종형묘지(1449)와 비교해 보면, 그보다 약 10년 전에 제작된 것이지만 김명리 분청사기 상감 묘지의 경우 지문의 서체와 구성이 한층 짜임새 있다. 또한 형태가 보다 장식적이고, 크기도 13cm 이상 대형이다. 그러므로 형태나 지문의 구성 등에서 이와 같은 예가 없어 희소성이 높고 중요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아울러 서체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1. 조형적 희소성

종형 묘지식은 제작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희귀한 사례이다. 조선시대의 상장례 문화 중 묘지형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종형묘지는 주로 조선 중기, 후기의 것들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묘지는 종형의 가장 이른 예에 속하는 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현재의 유물 상태

이 유물은 일부 제작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터진 흔적이 있으나 유물의 보관 과정 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균열상태가 유물의 중요성이나 희소가치를 희석시킬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균열부분에 대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료적 가치

김명리는 『태종실록』에 수차 등장하는 인물로 戶曹正郎, 京畿經歷, 京畿首領官 등 고위 공직을 지냈던 역사적 인물이다. 이 묘지는 비록 개인사를 적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선 초기의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또 깔끔한 해서체는 비록 刻書라 하나 조선 초기의 서예사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와 함께 묘지의 굽바닥에 음각되어 있는 ‘行者 學敏 山直丹同’이라는 글귀는 행자나 산지기의 이름까지 담고 있는 정보들로서 민

속학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4. 자료 출처의 명확성

본 묘지는 전세품이 아니라 1989년 안동김씨 문온공파의 묘 이장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희소성이나 자료적 가치가 높아도 출처가 의심스러워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 유물은 계보와 출처가 명확하므로 문제가 없다.

5.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타당성

이 묘지는 조형적으로 희소성이 높고 유물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자료적, 사료적 가치가 높다. 상대적으로 보물 577호 <분청사기상감정통5년명어문반>이나 조선초기의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물들과 비교할 때 이 유물만이 가지는 조형적 특징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묘지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1. 시대성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종형묘지>는 출토상황과 출토지가 명확하고, 143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어 조선 전기 묘지를 대표하는 시대성을 갖추고 있다.

2. 작품성 및 예술성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종형묘지>는 조형적인 면에서도 이 시기 보기 어려운 대형의 종형 몸체에 투조된 상부가 접합되어 성형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묘지에 새긴 글자는 전문 刻字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매우 단정한 해서체이다. 김명리의 위상이나 묘지명을 지은 사람 등을 고려할 때, 조선 15세기 서예사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희소성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종형묘지>는 국내 몇 점 안되는 종형 묘지이고 그 내용이 상세하고 묘지 바닥 접지면에 “行者 學敏 山直 丹同”이라는 행자나 산지기(山直)의 이름까지 정성들여 刻字한 점 등은 묘지 가운데서도 매우 희소성을 지닌다.

결국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종형묘지>는 출토상황과 출토지가 분명하고, 143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와 조형상 희소한 鐘形, 刻字 장인에 의해서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정한 해서체의 誌文 등 중요한 도자사적, 서예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충분히 지정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명칭 :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現狀

이 분청사기 상감 중형묘지는,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부사(成川都護府副使)였던 金明理(1368~1438) 전체적으로 중 형태인데, 동경 23.5cm, 저경 21.5~23cm라는 수치에서 보듯이 상부에서 저부로 내려오면서 직경이 약간 좁아지는 비대칭의 원통형이다. 상면 중앙에는 높이 4cm의 蓮峰形 꼭지가 부착되었다. 연봉형 꼭지는 연꽃잎으로 장식했는데, 꽃잎의 윤곽을 음각선으로 표현했고, 윤곽선 안에 삼각형 透刻文을 상단 9개 하단 10개씩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바닥의 접지면은 環形으로 폭은 4.3~4.5cm이다.

묘지문은 동체의 측부 외면에 전면에 걸쳐 백상감되었다. 다만 동체 측면의 상면 가장자리에 2줄, 저부 바닥에 가깝게 1줄의 백상감선을 둘러 묘지문을 기명할 측면을 확보했다. 이렇게 상하단을 구획하고, 다시 동체 측면에는 세로로 얇은 백상감선을 2.1~2.2cm 간격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그었다. 이 백상감선 사이에 묘지문을 楷書體로 백상감했다.

이 중형지석의 태토는 완전히 자기질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유약의 시유 상태도 좋지 않다. 이런 이유로 유약이 박락된 곳이 많고 글자가 거의 그대로 노출된 곳도 있어 훼손이 우려되므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몇 군데 균열도 보이고 또 발견 당시 깨진 부분을 보수한 흔적도 있다.

종의 바닥 접지면은 유약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두 곳에 굵은 균열이 있고 ‘行者學敏 山直丹同’라는 8자가 등근 바닥면을 따라 縱으로 새겨져 있다.

이 분청사기 상감 중형묘지는, 1989년 3월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목동 (출토 당시 는 행정편제상 경안읍 목리)에 위치한 金明理(1368~1438) 부부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는데, 김명리 무덤 앞 상석 뒤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출토된 후 안동김씨 문은공파 종손이 1996년까지, 그 후에는 안동김씨 문은공파 대종회 회장이 개인 은행금고에 보관하다가 2011년 10월에 경기도박물관에 위탁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 내용 및 특징

이 분청사기 종형묘지의 지문은, 김명리(1368~1438)의 가계 계보·부모·이력·성품·부인과 자녀에 대한 내용을 적은 行狀이다. 행장을 지은 이는 集賢殿直提學을 지낸 柳義孫(1398~1450)이며,²⁾ 김명리의 첫째 아들 맹헌과의 교분으로 지문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행장을 지은 시기는, 김명리가 1438년 12월 죽은 후 이듬해인 正統4年(1439) 己未년 겨울 10월 하순이다.

따라서 이 분청사기 묘지의 제작 시기는 1439년 10월 하순 이후 1440년 경일 것이다. 그리고 묘지를 제작한 곳은, 경기도 광주의 어느 가마였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김명리가 퇴직 후 廣州 炭洞里에 머물렀고, 무덤이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목동(출토 당시 경안읍 목리)에 위치한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분청사기 상감 종형묘지로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인 분청사기 상감 ‘정통14년’명 종형묘지(1449)가 있다. 이 묘지는 높이가 20.8cm로 김명리 분청사기 상감 종형묘지보다 13cm 이상 작다. 형태면에서 유사한 종형이지만,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은 상면이 뚫려있고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김명리 묘지에 비하면, 묘지문의 구성과 수법 등에서 짜임새가 부족한 편이다. 명문으로 보면, 김명리 묘지가 정통4년(1439)이고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은 정통14년(1449)이므로 10년이란 시간차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 두 점의 정통명 묘지는, 세종연간 분청사기 상감문 묘지의 양식 발달을 연구하는 데 좋은 비교 자료이다.

이 외에도 정통명 분청사기가 몇 점 전해온다. 삼성미술관리움에 소장된 분청사기 상감연화어문 ‘정통5년’명 묘지(1440)와 분청사기 상감 ‘정통13년’명 사각묘지(1448)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묘지들은 같은 분청사기지만 형태가 전혀 다르고 양식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鄭良謨 編著, 『白磁·粉靑沙器』, 『國寶』 8, 藝耕, 1984.

호암갤러리, 『粉靑沙器名品展』, 1993.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이 유물은 내부가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鐘모양의 형태를 지닌 분청사기 묘지이

2) 柳義孫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1419년(세종 1년) 생원시에 이어 1426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검열·감찰·수찬을 역임하고, 1436년 文科重試에 을과로 급제하여 직제학이 되었으며, 동부승지를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 1447년 이조참판을, 그 뒤 예조참판에 기용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저서로 『檜軒逸稿』가 있다.

다. 형태는 상면에 삼각형의 투각을 한 蓮峰形 꼭지가 있으며 몸체는 팽팽한 어깨부 아래로 굽바닥까지 수직을 이루는 측면선을 보여준다. 제작은 뚫린 부분을 아랫방향으로 하여 물레성형을 한 후 상부까지 올린 후 마감하였고 상부에는 꼭지부분을 추가로 부착하였으며 바닥면은 넓게 뚫어 내부를 볼 수 있다. 태토는 정선된 분청사기토를 사용하였고, 유약은 철분이 함유된 장식유를 석위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유색은 청자의 빛깔과 유사하다.

묘지의 측면에는 세로로 1,684자의 글자를 楷書로 백상감하였는데 全書를 거의 알 수 있을 만큼 각이 뚜렷하다. 번조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표면에 석위진 유약 면의 일부는 오랜 매장과정에서 일부가 탈락된 듯하며 굽바닥은 시유한 후 유약을 긁어내었다. 묘지의 내부에는 상부와 중앙부까지만 유약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유과정은 묘지석을 거꾸로 유약 통에 담았다 꺼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태는 상부 두 곳, 바닥면 두 곳에 큰 균열과 동체부 세 곳 등에 가는 균열이 보이며 큰 균열은 번조과정에서 생긴 듯하다. 특히 상부의 균열은 현 경기도 박물관 이관 이전에 수지성분의 물질과 안료로 도포를 하여 마감을 하였으나 눈에 쉽게 관찰된다.

○ 내용 및 특징

묘지의 내용을 보면 서두에 “조선국 봉정대부 성천도호부부사 겸 권농부사 안주좌익 병마단련부사 김공묘지(朝鮮國 奉政大夫 成川都護府副使 兼 勸農副使 安州左翼兵馬團 鍊副使 金公墓地)”라는 제목에 이어 金明理(1368~1438)의 가계 계보, 부모, 이력, 성품, 부인, 자녀 순으로 行狀을 기록하였다. 묘지명이 지어진 시기는 1438년 12월 김명리가 사망한 이듬해인 1439년 겨울 10월 하순이다. 묘지의 제작시점은 명문작업이 끝난 직후로 추정할 때 1439년 말경 이후에서 1440년 경으로 추정된다. 誌文은 도승지를 지낸 柳義孫(1398~1450)로 김명리의 세 아들 중 첫째, 셋째가 자신과 동년의 벗이었고, 특히 첫째 아들 소운 김맹헌과의 교분이 있어 사양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 내용 중 김명리는 관직 퇴임 후 廣州 炭洞里에 머무르다가 正統 戊午年(1438) 겨울 12월 23일에 卒하였다. 현재 김명리의 묘도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목동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이 묘지는 官窯운영 이전 단계의 광주 일대 가마터에서 번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태종실록』 1년 01/04/15(계유), 5년 03/01/16(갑오), 5년 03/04/20(병인), 6년 03/07/10(을유), 21년 11/06/17(병오), 22년 11/07/10(기사), 24년 12/07/09(임진).

『안동김씨 문온공파 세보』 권2.

○ 기 타

이 묘지는 1989년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목동에 위치한 김명리(金明理 : 1368.2~1438.12)묘의 이장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출토 이후 후손인 안동김씨 문은공파 대종회에서 보관하다가 2011년부터 경기도박물관에 위탁 보관된 상태이다.

□ 관계전문가

○ 현 상

이 분청사기 墓誌는 1989년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목동에 위치한 김명리(金明理:1368.2~1438.12)묘 이장 과정에서 출토되어, 후손인 안동김씨 문은공파 대종회에서 보관하다가 2011년부터 경기도박물관에 위탁 보관된 상태이다.

이 묘지는 조선 전기 분청사기의 일종으로 적황색 태토에 얇은 회유가 시유되었다. 형태는 속이 빈 원통형으로 머리에는 蓮峰形 장식이 부착되어, 鐘形을 이룬다. 크기는 높이 34.0cm, 동체지름 23.5cm, 저경 21.5~23cm, 접지면의 지름은 4.3~4.5cm이다. 정상부의 연봉형 장식은 높이 4.0cm, 지름 6.8cm이며, 전면에 각각 10개씩 2단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透刻하였고, 삼각형 투공의 가장자리에는 가는 음각선을 조각하였다. 동체 높이는 28.3cm이며, 상단에 두 줄, 하단에 한 줄 백상감 선문으로 구획하였다. 구획된 몸체 중앙에는 백상감으로 2.1~2.2cm 간격으로 세로 野線을 긋고 그 안에 묘지명을 단정하게 해서체로 백상감하였다.

유물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균열과 유면 박락이 있다. 특히 유층이 얇고, 磁化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인 동체의 상부는 충분히 번조되지 않아 유층이 대부분 박락되었다. 동체 위부분과 아래 부분에도 유면 박락이 확인된다. 동체에서도 7곳 정도에서 균열이 발견되며, 한 곳은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로로 길게 이어지고 다시 몇 개의 균열이 가로로 진행된 상태이다. 그 외 동체 곳곳, 약 네 곳 정도에도 균열이 있어, 일부 부분에 수지 성분의 물질로 메우고 물감을 이용하여 보수한 흔적이 있는데, 이는 경기도박물관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행해진 처리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글자의 형태가 변형되었으나 덧칠된 부분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형 묘지의 내부를 보면, 상부는 시유되었으나 하부와 접지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접지면 두 곳에도 균열이 가있는 상태이다. 접지면에는 ‘行者學敏 山直丹同’이라는 글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다.

○ 내용 및 특징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종형묘지석은 미술사적 양식뿐 아니라 묘지의 내용, 즉 묘지명이 구체적이고 서체가 뛰어나 당시 생활사와 서예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묘지명은 “조선국 봉정대부 성천도호부부사 겸 권농부사 안주좌익병마단련부사 김공묘지(朝鮮國 奉政大夫 成川都護府副使 兼 勸農副使 安州左翼兵馬團鍊

副使 金公墓地)”라 적은 제목을 시작으로 金明理(1368~1438)의 가계와 이력, 성품, 부인과 자녀에 대한 내용 순으로 行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묘지명이 지어진 시기는 김명리가 1438년 12월 졸한 다음해인 1439년 겨울 10월 하순이며, 묘지가 제작된 시점은 묘지명이 지어진 이후로 보인다. 誌文을 지은 사람은 김명리의 첫째 아들 맹헌과 교분이 두터운 集賢殿直提學을 지낸 柳義孫(1398~1450)이다. 묘지명 내용에는 김명리가 관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廣州 分원 인근의 炭洞里에 머무르다가 正統 戊午年(1438) 겨울 12월 23일에 卒하였다고 하여 김명리가 졸한 후 자손들이 分원에 묘지 사변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묘지의 특징은 “鐘形”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종형 묘지는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몇 점 전하지 않는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분청사기상감 정통14년명 종형묘지>(높이 20.8cm)가 가장 유사하나 크기가 작고 결정적으로 상단의 원추형 장식이 없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묘지는 종형, 비석형, 접시형, 호형, 장방형, 원형 등으로 분류되지만 종형 묘지는 매우 희소하다.

<참고문헌>

『태종실록』 태종 1권, 1년(1401) 4월 15일(계유), 태종 5권 3년 1월 16일(갑오), 태종 5권 3년 4월 20일(병인), 태종 6권 3년 7월 10일(을유), 태종 21권 11년 6월 17일(병오).

보고 사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동산 2014-03-011

1.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다량소장처 특별점검에 따른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검토

가. 보고사항

2013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및 다량소장처 특별점검과 관련하여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보수 및 보존처리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사유

- 2013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및 다량소장처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보수 정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수 및 보존처리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 : 국보 제128호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24건(국보 5건, 보물 19건)
- 추진경과
 - 2013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 조사대상 : 서울 사립기관 소장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272건(국보 61건, 보물 211건)
 - 조사내용 : 문화재 수량,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각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 조사결과 : 보존처리 필요 판단 16건(국보 6건, 보물 10건) *국보1, 보물1 보존처리실시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특별점검
 - 조사대상 : 47개 다량소장처 156건(국보 15건, 보물 141건)
 - 조사내용 : 문화재 수량,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전시관 운영 실태, 기타 건의사항 수렴
 - 조사결과 : 보존처리 필요 판단 11건(보물 11건) *보물1 2014년 국고보조 보존처리대상

라. 향후 처리 계획

- 보존처리 등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결과 통보 및 국고보조 신청 독려
- 유물소장처의 시설 노후화로 유물의 안전 보관이 어려운 경우 2015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유물 보관 환경 개선 지원(온습도조절, 화재, 도난 시설 등)
- 유물소장자 또는 소장기관의 인식 개선 및 문화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 및 조계종단 문화부·교육원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붙임 : 보존처리 검토 대상 목록 1부.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

<붙임> 보존처리 검토 대상 목록

○ 2013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검토 대상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장처	유물상태
국보 제128호	금동관음보살입상	1구	삼성미술관 리움	좌대 하단부 분말화 진행 , 뒷면 철녹 있음
국보 제243호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1	1축		갈변 및 얼룩이 있으며, 충해에 의한 결실부 있음
보물 제695호	불조삼경	1책		모서리 결실 및 찢김, 판심부 갈라져 찢김, 습기 얼룩과 표면 마모
보물 제703-1호	장승범수	1책		충해로 인한 천공, 모서리 마모 및 배접 분리, 습기 얼룩 및 갈변
국보 제268호	초조본 아미담비파사론 권11, 17	2축 점	호림박물관	권11 : 모서리 결실 및 박락, 습기 얼룩 권17 : 모서리 결실 및 박락, 일부 축부분 갈변과 얼룩 심각
국보 제202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	1축	(재)아단문고	관수 부분 오염 얼룩 찢김 등 손상이 있으며 전체적인 갈변 진행
국보 제250호	이원길 개국원종공산녹권	1축		표면 먼지 및 곰팡이 오염, 얼룩, 찢김 등 손상
보물 제550호	주역천건록	3책		전체적 갈변 및 오염, 접힘 및 찢김 등 손상 심각
보물 제573호	시천건록및서천건록	1책		표면마모, 결손 등 손상 심각, 뒷표지 경화 진행
보물 제894-1호	주범망경	1책		구김 및 박락 심하며, 먼지 및 곰팡이 오염 심각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 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권7-8,9-10	2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책사를 대신한 철사 부식, 습해, 얼룩, 찢김 등 손상
보물 제772-1호	금강경삼가해 권1,5	2책		1권 : 대체로 양호 5권 : 가장자리 습해 얼룩 및 결실, 충해로 인한 천공 및 분비물 오염
보물 제309-10호	안중근의사유묵-세한연 후지송백지부조	1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죽자 장황 약화, 상·하축부분 찢어짐, 부분 변색
보물 제477-2호	채제공 초상 일괄-금관조복본	2점	채규식	화면 금박 일부 박락, 화면 중앙부분 찢김, 상·하축 일부 분리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특별점검 결과 검토 대상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장처	유물상태
보물 제1315호	무위사 극락전 내벽사면벽화	29점	무위사 유물전시관	전시관 누수 및 진열장 내 습해로 표면 곰팡이 발생
보물 제1232호	진주 청곡사 목조제석천·대범천의상	2구 (의자1구)	청곡사 유물전시관	손상이 있는 제석천 손가락이 테이프로 임시접합
보물 제1693호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9폭	옥천사 유물전시관	화면 일부에 곰팡이 발생, 물 얼룩 흔적이 있음
보물 제1346호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1기	백양사 유물전시관	크랙 진행중. 강화처리 필요 *이외보관 중임에 따라 동파 우려
보물 제181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복장유물	후령통1점 발원문2점	월정사 유물전시관	열화가 심하여 보존처리 필요
보물 제1812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복장전적	2점		절첩장 하단에 곰팡이 흔적, 클리닝 등의 조치 필요
보물 제1694호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	1점	쌍계사 유물전시관	안료 탈락 보존처리 시급
보물 제1364호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1점		표면안료 박락을 안정화시킬 필요 있음
보물 제757호	감지금니대방광 불화엄경 주본 권46	1축	통도사 유물전시관	마모가 많아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전시가 바람직함
보물 제1353호	통도사 영산회상탱	1점		2차 보존처리로 표면안료박락을 안정화시킬 필요 있음